



홈커밍데이 겸 동문 가족 친목대회 성황



본회 徐廷和회장은 대회사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는 동문 모두가 모교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돼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열린 친목대회에 참석한 동문 가족이 다양한 공연을 즐기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관련기사 3~5면>

관악출추

관악산은 울긋불긋 완연한 가을빛이었다. 총동창회 주최로 해마다 열리는 홈커밍데이 친목행사편만 올리는 유난히 단풍잎이 곱게 물들었다. 그 단풍의 경치를 배경으로 간편한 야외복 차림의 동문과 가족들이 잔디밭에서 흥겹게 어울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할아버지 손목을 잡거나 아버지 어깨에 목말을 탄 꼬마들도 덩달아 즐거운 모습이었다. 그 꼬마들도 언젠가는 관악캠퍼스의 어엿한 일원이리라.

홈커밍데이 행사가 연륜을 더해가면서 내실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도 의미있게 받아들일 만하다. 웃음바다를 이룬 오락 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탐방코스인 모교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규장각도 호기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캠퍼스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학창시절의 옛 강의동 사이에 또 다른 시설들이 빼곡히 들어선 모습에 그동안의 발전상을 새삼 되새길 수도 있었다. 캠퍼스 안에서 자칫 길을 잃겠다는 얘기가 꼭 농담만은 아니다.

내년 홈커밍데이 기약하며

그리고 보니 모교가 관악으로 옮겨간 지도 내년으로 벌써 40년이 된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낮은 탓에 마치 전셋집에 세든 입주자들처럼 갓스레 입술을 빼죽거리곤 했다. 어쩌다가 다른 단과대학 강의실 앞을 지나치게라도 되면 저절로 걸음이 빨라지기 일쑤였다. 서로 눈길을 마주치는 게 어색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캠퍼스 주변의 하숙시설이나 교통편도 아직은 불편할 때였다. 가뜩이나 시국이 어수선할 무렵이기도 했다.

이번 홈커밍데이 방문에서 구경할 수 있었던 관악캠퍼스의 모습은 흑백사진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과거의 분위기와는 달랐다. 대학 고유의 운치와 낭만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던 것은 모처럼 대학 울타리 안에 들어섰기 때문이었을까. 관악으로 이전한 이후 나름대로 형성돼온 질서와 세월의 두께도 느껴졌다. 무엇보다 캠퍼스가 연속된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돼 활기찬 분위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재학시절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다.

모교는 내년으로 개학 1백20주년을 맞는다. 통합개교로는 69주년이 된다. 관악캠퍼스 이전 40년이라는 사실보다 더욱 큰 의미를 지니는 연륜의 마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대 120년사' 편찬 및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작업이 진행되는 중이다. 중국총동창회가 새로 출범하는 등 해외 동문조직도 활성화되고 있다. 총동창회가 관리하는 동문 회원수가 최근 몇 달만에 20만명으로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온다. 내년의 홈커밍데이 행사 때는 단풍이 더욱 곱게 물들어 있을 것이다. <許英燮 이데일리 논설위원실장·본보 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서울대 나왔다는 게 사회생활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신문사에 들어간 뒤 한 선배로부터 들은 얘기가. 같은 서울대 출신이라고 해서 취재원이 기사거리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취재 현장에 나가면서, 특히 법조계를 취재하면서 선배 말이 전혀 거짓은 아님을 알게 됐다. ‘서울대 졸업’ 경력은 취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 수년 전 모 대학 출신인 한 방송사 선배는 술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석천씨, 내 고향이 호남이잖아. 6공(盧泰愚정부) 때 검찰에 갔는데 TK 출신 부장검사가 따로 부르더라고. 자기도 같은 대학 나왔다고 반가워하면서 말을 놓더라고. 바로 형 동생이 됐지. 수사 내용도 알려주고...”

그는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순간 내 머리 속엔 깍듯하게 경어를 붙이며 심리적 거리를 정확하게 지키던 서울대 출신 법조인들의 얼굴이 스쳤다. 도드라진 인상은 따뜻함 대신 깔끔함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우선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이 기자 일에 보이지 않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음을 깨닫게 됐다. 능력과 열정이 있는 데도 세속적인 대학 순위로 평가받는 동료·선후배들을 보면서 ‘나는 학력고사 성적 잘 받았다는 것 하나로 결코 무시하지 못할 +α를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α’가 크지 않다지만 전부가 될 때도 있지 않은가. 나아가 서울대 동문이란 이유만으로 뭉친다면 그것이 과연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 앞에 서

‘서울대’ 도움이 안 된다고?

權 石 泉
(사법85-89)
중앙일보 사회2부장
본보 논설위원



게 됐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情은 넘치는데 善意는 없는 사회’라는 말이 있다. 정이 혈연이나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선의는 인연이 없는 상대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정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에 선의가 가려진 사회가 과연 바람직할까. 친밀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세상은 힘없고 소외된 이들에겐 지옥일 뿐이다.

나는 나를 포함한 서울대인들이 선의를 확산시키는 중심이 되길 바란다. 각자가 놓인 위치와 상황에서 학연과 지연, 그리고 이념의 진영을 넘어 선의(good will)를 퍼뜨린다면 한국 사회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이 사회로부터 받아왔다. 적은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는 나름대로 좋은 직장, 좋은 자리에서 혜택과 존중을 받아왔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누릴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가 됐으면 한다. 함께 배운 것을 사회에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한다. 그럴 때 서울대 출신이란 사실이 진정한 자랑스러워지지 않을까.

관악시단

달팽이

林 溶 璵(의학57-64)
정신과 전문의

우리는 달팽이랍니다
태어나서 걸음마 하려면
1년 365일이 걸리지요

또 홀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20~30년이 짧기만 하답니다

어찌 이 뿐이겠습니까?
달팽이 건드리면
제 집 속으로 쏙 들어가듯

우리는 세상만사에 부딪히면
우리가 만든 갑옷 속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만답니다

이래서야 우리에게 예(禮)가 없다면
달팽이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례물시(非禮勿視)
비례물청(非禮勿聽)
비례물언(非禮勿言)
비례물동(非禮勿動)

천리(天理)로 가는
길(道)이 아니겠습니까?

동문칼럼

나는 지난 2007년 21년을 봉직한 서울대를 떠나 워싱턴대로 자리를 옮겼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및 서구에서 한국학 증진을 위해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지난 수십년 미국 한국학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워싱턴대를 택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항상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의 힘을 합칠 것인가에 대해 수년간 고민해 오고 있다. 그러던 차에 뜻밖의 상황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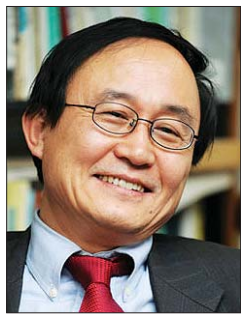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회 의에 앞서 개최된 제3회 SNU Brain Network 발표회에 참여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아직도 미주사회에서 주된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발표를 듣고 동문들은 한결같이 이의 극복을 위해 미주동창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주동창회 한국학연구모임의 결성과 이를 지원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미주동창회장인 뢰仁煥박사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 미주동창회 미주한국학연구소 건립을 공약 사업으로 해 추진하고 있다.

혹자는 이 시점에서 왜 미주한국학연구소가 필요

한가, 또한 왜 서울대동창회가 이를 해야 하는가 의문을 가질 만하다. 미국내 한국학연구소의 필요성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데서 비롯된다.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은 한국의 식민화에 대한 당위성을 서구, 특히 영미 사회에 꾸준히 전파했다. 전후 한국의 신탁통치안은 이러한 일본의 악선전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미국 학계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일본학으로 시작한 미주 한국 연구자 1세대와 이들에게 훈련된 2세대들이 기본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도하고 있어 학계는 물

론 이민 2~3세대들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문제 이외에도 1960~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정작으로 향후 식민지 근대화론과 유사한 한국의 산업화가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관점을 미리 방지해 한국이 제2의 일본이라는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소가 미국에 소재할 필요성은 미국 학계의 세계적 주도성과 과거와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학을 전개해온 곳이며 정책적으로 한·미 관계는 앞으로 상당기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동창회는 지금까지 그 주요사업으로 모교의 발전과 특히 장학 사업을 벌여와 연구소 사업은 좀 생소하고 동창회 영역 밖의 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소가 수행할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다면 그런 생각은 곧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연구소는 한국학과 한국과 관련된 정책 연구와 토론을 진행함에 있어 모교 교수 등 연구진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진행될 것이며 동시에 학생들의 멘토링 등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보다 고차원적인 모교 발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국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국가나 공적 자금을 기반한 연구소보다 동창회라는 자발적 단체에 의해 구성된 연구소는 대외적으로 보다 높은 공신력을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연구소 사업이야말로 동창회가 지금까지 해온 영역을 벗어



河 龍 出
(외교67-71)
워싱턴대 한국학 석좌교수
모교 겸임교수

미주동창회 한국학연구소 창설

나 새로운 활동 영역을 개척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35만 서울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없이는 쉽게 현실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총동창회 徐廷和회장과 미주동창회 뢰仁煥회장 등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모교의 협력 그리고 전 동문들의 협력이 합쳐진다면 동창회 사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연구소 설립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서울대동창회와 모교가 합쳐 세워지는 미주한국학연구소의 머지않은 개소를 들뜬 마음을 가지고 기대해 본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徐廷和
편집인 金英豪
인쇄인 朴承熙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金鎮銅, 宋丙洛, 李炯均, 安炳燦, 丘月煥, 金好俊, 宋鎮赫, 李五峰,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李慶衡, 李元龍, 文昌克, 姜天錫, 高永才, 金仁圭, 徐玉植, 李元燮, 裴仁俊,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李東植, 鄭世溶, 朴聖姬, 曹炳喆, 許英燮,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金仇日, 李啓聖, 金鎮國, 吳在錫, 崔英勳, 李容式, 許承虎, 金昌均, 李先敏, 全榮基, 姜孝祥, 李相起, 金光德, 鄭星姬, 鄭在權, 申然琇, 姜京希, 權石泉,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申藝莉, 金伶姬, 金希媛, 洪智英, 李佳穎
편집부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林香默, 邊廷洙, 朴秀瑋



홍커밍데이 행사에 참여한 30대와 40대 동문들이 '호랑이팀'과 '사자팀'으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통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킨 서울대 COE합창단의 열창



승용차 경품 당첨의 행운을 얻은 권혁호(左) 동문

관악캠퍼스에 울려 퍼진 동문 함성!

공연·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 즐겨

35만 서울대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홍커밍데이가 깊어가는 가을 속에 관악캠퍼스 일대를 동문들의 함성으로 물들였다.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10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내에서 제35회 홍커밍데이 겸 서울대 동문 가족 친목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 가족들은 오전 9시부터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접수를 통해 기념배지, 대회 일정이 담긴 안내문을 받은 후 안내원의 인솔에 따라 등산탐과 교내탐방탐으로 나눠 자유롭게 관악산 자락과 캠퍼스 일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내탐방탐은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을 돌아보는 순으로 이뤄졌으며, 올해에도 이번 행사를 위해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문을 열어 개장 전부터 많은 동문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각 전시관 입구에서는 봉사자들이 행사장을 방문한 동문 가족들에게 커피와 차 등 따뜻한 음료를 제공했다.

지난 10월 8일부터 '하이브리드 하이라이트-스위스와한국:예술-인간-과학'이란 제목의 기획전시를 하고 있는 미술관은 미술에서의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55인치 곡면형 OLED TV로 접하는 비디오 아트 작품은 물론 스마트 화면을 통해 작품의 생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 등 다양한 전시물을 소개함으로써 많은 동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박물관에서는 일반인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학술 기초자료인 너구리, 고라니, 수달, 족제비 등 야생동물의 표본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박물관은 지난 10월 8일부터 모교 수의과대학 해부학연구실과 공동으로 '표본실의 동물들' 기획 전시회를

환도로 등산로 입구→제2공학관→교수회관→버들골로 이어지는 코스로 이동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산로 길은 비교적 평탄한 코스로 산자락 곳곳에 울긋불긋 물든 단풍까지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많은 동문의 발길을 끌었다.

모교 마당극 동아리 '마당패탈'의 공연으로 문을 연 2부 기념행사에서 徐廷和회장은 대회사로 통



댄스 대결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는 동문 가족들

진행하고 있다.

규장각에서는 조선시대 인재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나무처럼, 어린 싹처럼-조선시대 인재양성' 특별 전시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權奇奭(국사93-00)학예연구사가 직접 작품 설명을 해주면서 동문들의 이해를 도왔다.

대운동장에 모여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농생대 방향의 순환도로로 관악산에 오른 등산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카시아 동산→제4야영장 전 삼거리→모교 공대 순

해 "올해로 35회를 맞은 친목대회는 매년 수천명의 동문과 그 가족들이 참가해서 가족의 두터운 친목을 다지고 모교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허심탄화한 의견을 나누는 등 뜻깊은 시간이 돼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8년 전 우리는 '서울대'라는 모교 속에서 4년을 다 함께 어울리며 인간가치로서 지성, 겸손, 봉사라는 교육을 받고 모교와 국가의 일꾼이 돼 봉사하도록 사회에 진출했다"며 "우리가 이 행사에 '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는 것은 이처럼 모교의 모태에서 이 사회에 나온 그때부터 형제·자매로서 태생적 인과관계가 자연히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세상은 지금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모든 분야에서 방향감각을 잃어 나가는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오늘을 계기로 더욱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민족의 미래를 찾아 나가야 할 책무를 느끼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모교 成樂寅총장은 축사에서 "徐廷和총동창회장님의 주재 하에 많은 동문 여러분이 오늘 행사에 참석한 만큼 대학에서도 金鍾瑞교육부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 각

모교에 재학 중인 朴主愛(동양화 11입)양의 사회로 진행된 3부 친목과 단합의 시간은 특별 공연과 다양한 게임을 통해 동문 가족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특별 공연으로 명지대 鄭世煜(법학56-60 본회 부회장)명예교수가 '그라나다'와 '그리운 금강산'을, 모교 재학생 아가펠라 동아리인 '인스트루'는 '단발머리',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Java Jive' 등 가요와 팝송을 열창했으며, 정산서예연구실 徐秉圭(농경제57-63)대표는 자작시인 '관악골 연가'를 낭독해 감동을 받았다.

또 사대와 가정대 출신 동문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서울대 COE 합창단'은 '바위섬', '몽계구름', '우정의 노래'를 불러 참석자들로 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특히 모교 관소리 동아리 '추임새'의 張瑞允(국악10입)양은 鼓手 黃仁赫(국악10입)군의 장단에 맞춰 '사절가', '진도아리랑', 춘향가 중 '사랑가'의 한 대목을 관소리로 들려줘 많은 동문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특별 공연 후에는 2인3각 릴레이, 훌라후프 이어 넘기, 줄다리기, 공굴리기,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댄스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게임이 마련된 가운데 남녀노

소 모두가 참여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게임 참가자에게는 승패에 따라 고급 우산을 비롯해 등산 가방, 서적, 영화에 매권, 자동차 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전달했다.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경품

추첨에서 본회 徐廷和회장이 협찬한 승용차는 權赫朝(상학53-57)동문이 당첨됐으며, 가천대 李吉女(의학51-57 본회 부회장)총장이 협찬한 드럼세탁기는 張玉龍(통신공학52-56)동문, 스포코·삼익악기그룹 金鍾燮(사회사업66-70 본회 부회장)회장이 협찬한 디지털 피아노는 李暉夏(행정64-68)동문, 나노카보나 申一汕(AMPFRI 14기)대표가 협찬한 LUXDAY 숯침대는 金度亨(대학원00-02)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香)



부모와 자녀가 함께 펼치는 공굴리기 게임

홈커밍데이 협찬 감사합니다

홈커밍데이 겸 친목대회에 협찬금·품을 출연해 주신 각계 동문을 소개합니다.

- 지면 관계로 협찬품 및 협찬금(50만원 이상)을 내주신 분들만 사진 게재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신대 입학년도(미학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장
신
호



의대46·본회 고문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음료수 4천개

김
재
순



상대47·본회 고문
사단법인 샘터사 고문
위즈덤 서적 5세트

임
광
수



공대48·본회 명예회장
임광토건 명예회장
일금 50만원

성
낙
인



법대69·본회 명예회장
모교 총장
우산 3백50개

서
정
화



법대51·본회 회장
승용차 1대

손
일
근



법대51·본회 상임부회장
가천대 석좌교수
디지털 카메라 1대

한
두
진



의대50·관악회 이사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
일금 50만원

이
길
여



의대51·본회 부회장
가천대 총장
드림세탁기 1대

강
신
주



사대51·본회 자문위원
삼신 대표
일금 50만원

박
희
백



의대51·본회 부회장
박희백정형외과의원장
진공청소기 2대

이
해
원



법대51·본회 부회장
한국우드워드 회장
일금 50만원

박
맹
호



문리대52·前인문대동창회장
민음사 회장
아동도서 전집 5집

최
남
해



상대52·본회 자문위원
前중앙관광개발 대표
일금 50만원

고
광
우



법대53·본회 자문위원
고광우법률사무소 변호사
일금 50만원

김
창
식



공대53·본회 자문위원
오공 회장
일금 50만원

민
경
갑



미대53·본회 부회장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일금 50만원

이
대
순



법대53·본회 부회장
한국대학법원협의회장
일금 50만원

서
병
태



의대54·본회 자문위원
前강릉아산병원장
일금 50만원

이
금
기



약대55·본회 부회장
일동후디스 회장
그리요거트 3천4백개

장
용
택



약대55·본회 자문위원
신풍제약 회장
일금 50만원

공
대
식



공대56·본회 부회장
대영테크시스템 대표
전기레인지 1대

김
찬
숙



치대56·본회 부회장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일금 50만원

윤
세
영



법대56·본회 부회장
SBS미디어그룹 명예회장
일금 50만원

정
윤
환



농대56·본회 부회장
일성화학 사장
일금 50만원

손
경
식



법대57·본회 부회장
CJ그룹 회장
10만원 CJ상품권 5매

홍
성
대



문리대57·본회 부회장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일금 50만원

박
성
훈



공대58·본회 부회장
모간 사장
일금 50만원

안
성
철



법대58·관악회 이사
유니온테크 회장
일금 50만원

우
인
성



공대58·본회 부회장
인터비즈니스템 회장
일금 50만원

조
갑
주



상대58
신송홀딩스 회장
신송식품 선물세트 20개

강
인
구



수의대59·본회 부회장
대영EEC 회장
삼성세탁기 아기사랑 1대

김
영
무



법대60·본회 부회장
김&장법률사무소 대표
일금 50만원

박
영
준



상대60·본회 감사
대주회계법인 회장
일금 50만원

변
주
선



사대60·본회 부회장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혈액건강검진권 5매

유
상
부



공대60·본회 부회장
포스코 고문
일금 50만원

이
규
택



사대61·사대동창회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일금 50만원

정
계
영



상대61·관악회 이사
원일전선판매 회장
일금 50만원

김
경
한



법대62·본회 부회장
KH법률연구소 변호사
일금 50만원

박
호
전



상대62·본회 부회장
삼덕 회장
일금 50만원

유
승
빈



공대63
양지진흥개발 회장
드래곤힐스파 이용권 5백매

윤
우
석



공대63·공대동창회장
진성티씨씨 회장
일금 50만원

김
동
녕



상대64·상대동창회 부회장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
영화매매권 50매

김
일
섭



상대64·본회 부회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일금 50만원

오
명



공대64·본회 부회장
동부그룹 전자총판 회장
일금 50만원

김
기
병



행대원67·본회 부회장
롯데관광개발 회장
30만원 여행상품권 3매

김
중
섭



문리대66·본회 부회장
스펙코·삼익악기 회장
디지털 피아노 1대

변
영
진



공대66·본회 부회장
홍익대 조빙교수
일금 50만원

성
기
학



상대66·상대동창회장
영원무역 회장
등산 가방 1백개

신
현
우



공대66
볼스원 부회장
자동차용품 1백개

유
인
수



미대66·미대동창회장
前상명대 예체능대학장
일금 50만원

이
경
수



약대66·약대동창회장
코스맥스 회장
일금 50만원

양
광
희



간호대68·간호대동창회장
前적십자간호대 학장
일금 50만원

이
현
봉



경영대68
넥센타이어 부회장
타이어교환권 1매

이
중
기



상대69·본회 부회장
상영무역 회장
일금 50만원

장
중
환



의대69·본회 부회장
장중환산부인과의원장
일금 50만원

박
건
배



치대70·치대동창회장
박건배치과의원장
일금 50만원

최
병
길



상대71
서울랜드 대표
서울랜드 빅5 이용권 50매

최
병
민



문리대71
깨끗한나라 회장
물티슈 4천개

강
대
현



인문대72·본회 부회장
국제교류증진협회 대표
일금 50만원

신
창
재



의대72·본회 부회장
교보생명보험 회장
일금 50만원

정
충
시



공대72·본회 부회장
태경산업 사장
일금 50만원

박
명
윤



보대원74·관악회 이사
한국과인트리클럽 총재
일금 50만원

최
수
현



사대75·본회 부회장
금융감독원장
일금 50만원

홍
석
규



사회대75
보광그룹 회장
론도 1박 이용권 3매

류
진



인문대78·본회 부회장
풍산 회장
일금 50만원

정
팔
도



AIP1·본회 부회장
코리아랜드컴파니 회장
김치냉장고 1대

김 병 순  AMP4·관악회 이사 한국구아노 이사 일금 50만원	강 보 영  AIP33·前AIP동창회장 안동병원 이사장 건강검진권 2매	서 정 권  ACAD2 일우선박 회장 일금 1백만원	장 재 현  HPM15 동인당약품 대표 차량용·가정용 가습기 각5개	신 일 산  AMPFRI14·AMPFRI고문 나노카보나 대표 LUXDAY 슷침대	김 경 일  ALP3·ALP동창회 부회장 금장금융그룹 대표 꿀 5통	서 진 원  AFP5·본회 부회장 신한은행장 일금 50만원
---	---	--	--	--	---	--

(일금 30만원)

◆미대 △이종철58

(일금 20만원)

◆공대 △강인권72
◆문리대 △진홍일62
◆수익대 △정영채56
◆음대 △고순자52
◆의대 △김구상69
◆경대원 △조현국73

(일금 10만원)

◆인문대 △김매리07 △김종겸67
△김형근99 △김흥수82 △박수현83
△이수연83 △전원배73 △최태영76
◆사회대 △권도형02 △김규연79
△김용태91 △김진국78 △김태호86
△박재홍86 △손영철74 △양길현74
△유일호75 △이승훈74 △이지수83
△장병언75 △정동철80 △최광해74
△최병목78 △황기호77
◆자연대 △강경관70 △이명웅77
△조성일92 △한창우75 △황지옥84
◆간호대 △박소현93 △박현애76
△안영숙69 △최명애66
◆경영대 △국기호79 △김용철83
△박현수70 △안수현77 △정희정94
△지성배86 △차정호77 △최병철74
◆공대 △강부건62 △강주복52
△강창수48 △강학순64 △강행연61
△곽병현67 △구자영54 △김광권70
△김광수84 △김국호65 △김노수45
△김대하70 △김동수75 △김봉완46
△김상현05 △김성언71 △김성철73
△김세준83 △김용환43 △김유경68
△김익홍67 △김정근57 △김정기64
△김준언71 △김진무65 △김진원68
△김춘길58 △김형백54 △김형진51
△남승윤82 △명태현46 △박재범84
△박준장47 △서동철95 △서립규57
△서상기65 △설영화65 △성준용67
△송명호59 △송배원75 △송재준66
△송주철56 △송진해63 △신근식66
△신동수52 △심우갑64 △안경수70
△안수길50 △양만용81 △양봉훈71
△양흥준65 △여태승82 △염사연64
△오원석71 △오제환76 △오창석46
△우상룡72 △우상선68 △우진태71
△원호영59 △유익선59 △유재운78
△육종철50 △윤병화58 △이진60
△이계식75 △이광노47 △이광성66
△이근명63 △이명필73 △이범창52
△이상룡50 △이상준76 △이세열78
△이승준56 △이영필66 △이용우64
△이웅희49 △이원도59 △이익용55
△이익효59 △이정구60 △이종대57
△이종만72 △이종웅57 △이종호59
△이중성61 △이태민85 △임병주52
△장삼진51 △전문휘53 △전효택67
△정우식80 △정은희04 △정조섭56
△제해현65 △조태홍70 △조필재46
△주영재72 △최연68 △최경준63

△최동훈71 △최안분53 △최재열69
△최정욱49 △최창환60 △추지석59
△한성섭68 △홍사영79 △홍해남73
△황인섭73
◆농대 △강인식79 △곽영철59
△구본무62 △권명구68 △김동암52
△김사일53 △김상국51 △김시현80
△김용구57 △김유인63 △김일봉68
△김정목59 △김종대72 △김진석69
△김진수62 △김택현65 △김홍진65
△류관희63 △민병운56 △박대경51
△박병호69 △박상홍55 △박수복56
△박승걸53 △박승제73 △백창영69
△서문원74 △석준호55 △성배영62
△신동소53 △염태영80 △윤병성54
△윤희진63 △이경국78 △이덕록72
△이동선73 △이미수56 △이원규58
△이재창57 △이정식69 △이형주66
△임봉주65 △임영목57 △임형백89
△정기수54 △정진구65 △조준기54
△차성윤57 △최윤재73 △황의연82
◆문리대 △강성위52 △강신형49
△고윤석47 △권기욱60 △권태승55
△김강년54 △김경동55 △김광식59
△김규상57 △김기동65 △김병각62
△김병익57 △김병호66 △김상하45
△김승국56 △김웅재66 △김주현63
△김찬근69 △김태수62 △문영모60
△박애주47 △박형구48 △손보호57
△송동준56 △송희성56 △신동우71
△신우식53 △신정용61 △신하용71
△염병윤60 △염영섭66 △염정임63
△오완영59 △윤석현46 △이결69
△이경재59 △이근무56 △이대승66
△이성해61 △이승윤51 △이정자50
△이제훈58 △이준일61 △이희경59
△장병우65 △장정환56 △전종갑64
△정낙찬69 △정병순58 △정승원71
△조기웅66 △조남홍55 △조완규48
△조용국66 △주철기73 △최종무68
△한광옥60 △한기호57 △허종덕63
△홍종웅65 △황보순57
◆미대 △김순자62 △김연수76
△김영태59 △김정혜61 △박항률70
△백문기46 △이만희82 △이신자50
△이종상59 △정광호60 △주민숙64
△현용순68
◆법대 △강용현71 △경종철60
△공성국77 △김광현54 △김규복69
△김달식53 △김득환79 △김상균77
△김상수69 △김상희69 △김성룡60
△김수목83 △김신형61 △김영훈71
△김용대79 △김의재56 △김진호57
△김창국58 △김학재63 △김하남49
△김현순54 △김현수52 △나대진67
△목요상55 △문익상58 △박국수67
△박상기56 △박성철75 △박영희61
△박종우57 △배기열82 △배병우53
△배석필56 △백덕열67 △서동희80
△석동현79 △성문용63 △송광수67
△신상규68 △심재갑52 △안문태59
△안종윤51 △오복동57 △오태환53
△유훈49 △유영철60 △유인의61

△유태현59 △유해덕53 △윤성태61
△윤우진71 △윤재열50 △윤준원67
△이대공60 △이동명75 △이동특59
△이상건77 △이상운50 △이영주58
△이원진05 △이인표54 △이준상85
△이현범72 △임도빈65 △임무섭52
△장병목63 △장병규53 △장윤석68
△장태규76 △장남희60 △장병섭56
△정용인60 △정진국70 △정호영66
△정희준57 △조건호62 △조동원54
△조영근77 △주덕인66 △지관열75
△최경원63 △최근선54 △최기선64
△최두영93 △최병덕72 △최병모67
△최병조71 △최상엽56 △태복식48
△하창우74 △한광세60 △한봉희77
△한상태56 △한승희55 △홍경용49
△황성일56 △황영선55 △황진구8
◆사대 △강경은59 △고은희53
△구성희55 △김동길57 △김선양53
△김영삼73 △김유기98 △김인수53
△김조영60 △김혜경70 △민흥기59
△박강문63 △박문수74 △박영배65
△박한식51 △박희숙56 △변재익61
△성백신47 △송동수67 △심규선80
△심재철77 △어명하59 △연대성60
△오건주76 △윤종상52 △이기석59
△이석주60 △이원우63 △이익환64
△이춘구54 △임창선72 △전병일66
△정근화63 △정완호58 △정일환46
△정현태81 △제욱례33 △조남진58
△조용복55 △조은분42 △최기남52
△최병주56 △최수현75 △히순봉60
△한예석58 △허영섭74 △홍윤숙46
◆상대 △강신종60 △공정근55
△권혁승53 △김사철55 △김승환67
△김승훈68 △김영식57 △김용수56
△김제심51 △김종덕55 △김창수66
△김호식71 △나공목56 △노명래54
△류태환48 △문대원71 △민상기66
△박정열60 △배정운59 △서주성44
△서태식58 △석학진58 △심남진49
△심재석64 △안재동60 △안재전56
△안태호45 △오수길63 △원우식52
△유대진51 △이규성58 △이두석55
△이성태64 △이순국60 △이용우61
△이용진68 △이원규56 △이정상59
△이종연52 △이태용65 △이홍준46
△임재수51 △임조홍60 △임창열62
△임채우55 △장기팔56 △정기철56
△정덕용59 △정인숙46 △정효고70
△조규용53 △조문규57 △조병해53
△최광현62 △최남규60 △최창걸60
△추수목53 △허영구72 △홍면후46
△홍영기57 △황동규63
◆생활대 △김주혜87 △송기철95
△이의숙56 △이희자60 △최순목61
△황덕순72
◆수익대 △권순현76 △김건호70
△김본원63 △김형석97 △나종국54
△남궁선57 △백오섭58 △송기준59
△송치용83 △신광순52 △신현덕80
△염관식83 △윤석순59 △윤찬호69
△이각모64 △이규본61 △이정학80

△최윤석52
◆약대 △김광순59 △김규형53
△김상조54 △김종서56 △김진우54
△김진훈71 △김휘배65 △박승규59
△박종길71 △심규장70 △이상은58
△이세복64 △이일영56 △이종산71
△장석윤79 △전하창67 △조윤숙83
△진강56 △한방숙66 △한병련68
◆음대 △강신자56 △김귀현69
△김홍박00 △안형일53 △이경숙50
△임재원76 △장재흥57 △정준자78
△현병화48 △황화자60
◆의대 △강권철69 △강신일58
△김동윤76 △김명호68 △김미나83
△김민석91 △김소연74 △김영홍49
△김우호74 △김응중76 △김재중77
△김주현65 △노동영75 △박용재65
△박조열52 △박찬일63 △서정호85
△선우대환71 △선덕영49 △손대원74
△송창섭53 △송익삼61 △신희섭68
△오연상75 △유왕성75 △유형래54
△윤광선68 △이관희75 △이기상73
△이상용64 △이익용72 △이재서82
△이호성62 △이홍규62 △장영91
△장윤석49 △정규병65 △정두석84
△정문성78 △정요한51 △조재현93
△지삼봉55 △채희복85 △최규완55
△최기용74 △최희목51 △한동수59
△황규전74
◆치대 △강성현69 △김경애57
△김경중72 △김승현98 △김오환62
△김용수89 △김용준53 △김주환47
△김홍석57 △남동석59 △민병덕64
△박상균66 △박준영56 △박행운56
△송영호57 △신덕재68 △양동규53
△양문섭78 △양우식70 △윤임도72
△이석근90 △이영목76 △이장훈57
△이형규57 △임성수60 △임승찬68
△정영일64 △정의종65 △조성직54
△지명주82
◆대학원 △김도현74 △김석웅81
△김철수73 △박광순95 △박승수82
△박재환81 △박종열71 △이동필81
△최일70 △하두봉56
◆보대원 △김윤진72 △박창진70
△신석우65 △정상호99
◆사대원 △김창식67 △전도영68
◆행대원 △김광림80 △박성일86
△배문환63 △신호현84 △연기호67
△유필우75 △윤일균69 △이주성82
△최계순65 △최석식83
◆환대원 △이평재73
◆AMP △강봉희36 △고용희73
△고진호74 △곽상엽34 △구길우29
△김상태1 △김성규29 △김영도23
△김영천30 △김인규6 △김재운31
△김정태59 △김종영28 △김해삼51
△박영춘66 △박태화1 △서종덕12
△서해선45 △송언기28 △신성우32
△안상태46 △오병제21 △우재영7
△유준웅31 △윤석봉74 △윤영호11
△이기전71 △이세탁45 △이원구50
△이하일66 △이하용58 △이현도26

△장호성69 △정광훈47 △정인근35
△조문규51 △조용호41 △조인상2
△조종대48 △최강호60 △최효석67
△한규범42 △홍성호66
◆AIP △권오석3 △김상모7
△김용석25 △맹흥우11 △문세웅42
△박장춘18 △송무현37 △신용기9
△심종덕15 △이강47 △이강기37
△이대만24 △이상희15 △이종철41
△이창규11 △이현영8 △전종선34
△전종윤10 △정태련7 △채희술33
△최경하7 △현정원19
◆ACAD △강부자37 △김경래18
△김충한18 △김태완44 △박현55
△박영순43 △신동만11 △신태용73
△이상종73 △정이조48 △정종모25
△최광주65 △최종욱20
◆ABP △박인규10 △이계용2
△이삼희20
◆SGS △구용호18 △김광두3
△박정호5 △방기석14 △임인호3
△장낙순10
◆APC △윤종아9
◆HPM △김광화9 △김도연13
△김정자20 △박상동2 △부영욱13
△양동근12 △유광희30 △이태수6
△장성호6 △조이만29 △주연채30
△최승용9 △황경수23
◆AMPP △고영목4 △서영교11
△이상철5 △전제원12 △최이기4
◆AIC △박희망9 △홍윤기1
◆AMPFRI △강동원27 △김성학30
△류돈희3 △문옥화30 △문윤봉15
△송명의24 △유영기23 △정관희6
△천병기19 △최창혁4
◆ACPMP △김정식3 △박찬의7
△정세화9 △정원배3 △정재훈7
◆FIP △장세영8
◆GLP △강대철25 △구운관27
△금상연19 △김동만15 △김명자13
△김익환20 △김제호17 △나기용10
△박종춘13 △오범석20 △오원복25
△오현득13 △이형석23 △임병선14
△정현치20 △조찬호22 △최종진12
△홍민희25
◆ALP △김인숙16 △김해연15
△양준호11 △장덕근16 △황은연12
◆SPARC △박상학12 △이두기22
△정순백17 △정창무13 △홍기남5
△황용규15
◆AFP △김현대13 △진하근8
△한순구10
◆ASP △서우택23
◆IFP △김대하1 △박경기1
△이호진5 △최귀학3
◆BCP △강예규7 △김영순10
◆ABKI △김진학2 △여명권3
◆KFL △조정현6

(이상 9월 25일까지 훌커밍데이
협찬금을 출연해주신 분, 이후 명
단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홈페이지 www.angelair.co.kr
1등급기청정기.한국



신제품 공기청정기 '오염공기' 책임지고 해결!! Angelwind 99m²(30평형)

※안전인증 : **K XH070162-14002A**

"공기청정기"에서 거품 (디자인, 부랜드, 복잡한 성능)은 모두 뺐습니다.
※헤파필터의 확실한 정화력! 저소음! 초절전형! 견고성! 품질보증! 필터A/S 보장! 만을 담았습니다.
※디자인, 부랜드는 정화를 안합니다. 정화성능만이 오염 공기를 정화합니다.
이제는 "오염공기" 때려 잡아, 우리가족, 국민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제품사양

•제품명/모델	공기청정기 / Angelwind-C-2030
•사 용 면 적	99m ² [30평용]
•전기안전 확인 신고증명	K XH070162-14002A
•전자파시험 적합등록	MSIP-REM-air-Angelwind2030
•정격/소비전력	AC/220V/60Hz, 15W
•먼 지 포 집 율	98% / 정전 헤파필터 ※초 절전형! 월 전기료 : 1,500원
•풍 량	0.4m ³ / 1분
•소 음	27.5dB

특성

먼지, 곰팡이, 매연, 황사, 악취, 새집증후군을 말끔이 정화 해결!

- 헤파필터로 미세먼지 황사 말끔히 제거 정화
- 미세먼지 포집율: 98% / 제거 실내 오염공기 걱정 끝!
- 전력: AC220v / 60Hz
- 소비전력: 15w / 초절전형 / 월전기료: 1,500원 선
- 자동 타이머: 3시간30분 / 작동후 30분 / 정지- 1일 / 6회 작동
- 저 소음: 27.5 db *size Ø25cm x 62cm/높이
- 걸러낸 먼지(필터)를 직접 볼 수 있고, 필터교환이 쉽다!
※ 걸러낸 먼지는 공기가 맑아졌음을 입증합니다!
- 필터는 1년에 한번 교환 (지역 오염도에 따라 단축될 수 있음)
※ 필터는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판매합니다.
- 강력한 정화력! 넉넉한 용량! "맑은공기" 효과를 느낀다!



필터/사용전



필터/사용후

효과

"맑은 공기" 호흡으로 개선이 예상되는 징후들

- 맑은 공기로 호흡편안, 깊은 잠, 피로 감소, 등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온다
※ 사용 3시간 뒤에는 가슴이 탁 트인다.
- 아기들은 효과에 정확히 반응함
- 집안에서의 미세먼지 황사 걱정 완전히 해소(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WHO발표)
- 99m² (30평) 실내를 항상 "맑은 공기" 유지!



특허증



전자파 합격증



전기안전인증서



(주)엔젤에어

경기도 화성시 원천동 43 / 고객센터, 031-355-3444
홈페이지, www.angelair.co.kr / 1등급기청정기.한국

※"공기청정기 Angelwind" 1대 가격은 495,000원(신용카드 할부 가능)



556229279 검색 ... 구매가능



본회(회장 徐廷和)는 지난 10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립서울대학교 120년사 개학 반세기(1895년에서 1946년까지)’ 편찬사업의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본회 徐廷和회장, 朴承熙

사무총장과 모교 成樂寅총장, 金鍾瑞교육부총장, 평의원회 鄭根植의장, 모교 120년사 편찬위원회 李泰鎭위원장, 상임·단과대 추천 편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120년사 편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편찬사업의 중간 결과 및 계

모교 120년사 편찬위원회

‘개학 반세기’ 편찬사업 중간보고

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교 成樂寅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역사 복원, 역사 정리를 하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본회 徐廷和회장은 “서울대 120년사는 모교의 정통과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고 서울대와 서울대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발전된 미래

를 연결해주는 끈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편찬위원회는 그간 일본 현지에서 입수한 사료를 비롯한 관련 자료들을 수집·검토해왔으며, 올해 12월까지 가목차 정비와 자료 수집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초부터 각 단위별 집필을 시작해 12월에 완성된 원고를 제출하고 교열 등을 거쳐 2016년에 책을 간행할 예정이다.

李泰鎭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모

교의 뿌리 찾기가 한국의 근현대 시기 역사적 배경 및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음을 설명하고 다양한 수집 자료를 근거로 법관 양성소 설립의 의의 및 관립전문 학교 학생들이 시대 정신 구현에 앞장섰다는 연구성과를 제시했다.

李泰鎭위원장은 “모교 ‘개학 반세기’ 편찬사업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새로운 주요 사실들을 발굴하게 됨으로써 국립서울대가 한국 근현대의 역사를 이끈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한국 근현대 지성사를 본격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기반을 역사학계에 제공하게 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秀)

함춘미술·문예전 열어 의대동창회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胐)는 지난 10월 6~12일 모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 3층 가전홀에서 제12회 함춘미술전을 개최했다.

이날 미술전 테이프 커팅식에는 金鍾和총무부회장을 비롯해 모교 의대 姜大熙학장, 출판회원 등 40

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申堯澈(의학54-61)동문은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2천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함춘회관 1층 사랑방에서는 제1회 함춘문예전이 함께 열려 의대 동문들의 글 솜씨도 엿볼 수 있었다.

동창회는 같은 날 연건캠퍼스 의학도서관 함춘재에서 도서기증식을 갖고 의학전문도서 2백39종 2백40권을 기증했다.

禹仁性부회장 등 결연사업 동참



본회에서 추진 중인 결연사업에 徐廷和회장에 이어 최근 禹仁性(기계공학58-62·인터비즈시스템 회장)·黃彩皓(교육심리61-65·비엠비 상임고문)부회장, 姜信主(사회교육51-55·삼신 대표)·李仁浩(사학55입·KBS 이사장)자문위원이 동참했다.

결연사업에 참여한 동문들은 재학생 한 명을 선정해 취업할 때까지 등록금뿐만 아니라 인생경험을 나눠주게 된다. 특히 禹仁性부회장은 회계관리 등 재무에 뜻이 있는 학생을 맡아 졸업 후 본인 회사의 재무담당자로 영입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어려운 후배들의 후원자가 돼주세요

서울대총동창회가 어려운 환경의 모교 재학생을 대학 입학 때부터 취업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결연사업을 시작합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의 인생 경험을 나눠주는 활동입니다. 최근 어려운 여건에서 학업을 마친 후에도 열악한 시장상황으로 취업을 하지 못해 좌절하는 후배들이 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 결연사업에 동참해 후배들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내용 : 모교 재학생 1~2명을 지정, 취업할 때까지 등록금 지원 및 진로 상담
- △지정방법 : 연고(고향, 학과, 고등학교, 동아리 등)가 있는 후배 등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신 분은 본회에 위임해 주시면 도움이 필요한 후배와 연결해 드립니다.
- △후원절차 : 총동창회에 결연사업신청서 요청 후 송부
- △문의 : 02)702-2233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徐廷和



Dreaming Tree, mixed media, 130.3×162.2cm, 2014년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安末煥 作

〈작가약력〉

- ▲1981년 모교 회화과 졸업
- ▲개인전 및 초대전 45회
- ▲국내외 아트페어 70여 회
- ▲국내외 단체전 3백50여 회
- ▲2012년 대한민국미술대전 및 다수 심사
- ▲2003~2005년 성남시문화예술발전기금 심의위원

※ 작가 한마디 : “혼돈 속에서 불안하고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나의 나무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신선한 숲,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깨끗한 당신의 호흡이 되고자 한다.”



본회 장학빌딩 1층 로비에서 거행된 林光洙명예회장 흉상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동창회 중흥의 역사 이룩한 林光洙명예회장 흉상 제막

본회 林光洙명예회장 흉상 제막식이 지난 10월 21일 서울 마포구 SNU장학빌딩 1층 로비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徐廷和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관악회 이사, 동창회보 논설위원 등 40여 명의 동창회 임원과 가족들이 참석해 林光洙명예회장의 흉상 제막을 축하했다.

본회 徐廷和회장은 축사를 통해 “林회장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건설면허 업체인 임공무소를 29세

젊은 나이에 물려받아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토목건설 회사로 일구시고 향만협회 초대 회장을 맡아 우리나라 향만 발전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등 훌륭한 역사적 업적을 일구신 분”이라며 “동창회를 위해서도 장학빌딩 건립, 모교 개교 원년 찾기, 70억원 규모의 모교 지원 사업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일을 하시며 총동창회 중흥의 역사를 이룩한 어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공대동창회장 재임 중에는 공학인들의 요람이 된 엔지니어하우스를 건립하셨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곳 서울대학교의 동창회관인 장학빌딩을 2011년 2월 준공해 동창회 구심점을 구축하셨을 뿐 아니라 동창회 자산을 현 시세 약 1천2백억원으로 증대시켜 안정적인 재정수입 기반을 확립시켰다”고 말했다.

본회 鄭世煜부회장은 林光洙명예회장의 1백20세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축가를 부르기도 했다.

흉상은 모교 조소과 李容德(조소77-82)교수가 제작했다. (南)



3백여 동문 모교서 친목 다져

약대동창회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慶秀)는 지난 10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앞 잔디마당에서 제32회 동창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李慶秀회장을 비롯해 모교 약대 李奉振학장 등 3

백여 명의 동문 가족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로 졸업 50주년을 맞은 18회 동기회는 50주년 기념여행의 마지막을 동창의 날 참석으로 마무리짓기 위해 해외 동문을 포함해 50여 명이 동참하는 열의를 보여줬다. 또 18회 동기회는 李奎鎬(약학60-65)동기회장이

출연한 1백만원을 포함해 2백만원의 기금을 동창회에 전달했다. 동창회는 지난 8월 충북대학교 제10대 총장에 선출된 尹汝杓(제약76-80)동문에게 축하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동문 가족들은 이날 오전에 李奉振학장의 안내를 받으며 신약개발센터 및 실험실 등을 탐방했으며, 오후에는 모교 음대 증창단의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즐기며 화창한 가을날을 만끽했다. 행사 중간마다 동문 노래자랑도 열려 숨겨왔던 멋진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골프 여성팀 첫 참가 대구·경북지부동창회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李墻雨)는 지난 10월 18일 경북 청도군 그레이스CC에서 추계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문 31명이 참석해 8개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치른 가운데 柳英雅(치의학73-79)·朴美淑(기약77-81)·이정인(영어교육01-07)동문으로 구성된 여성 동문팀이 처음으로 꾸려졌다. 柳英雅동문은 “그간 여성팀이 없어 참석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한 팀 이상은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날 南基閏(섬유고분자공학82-90)동문이 1위를 차지해 순회배로 주어지는 우승트로피를 받았으며, 李相善(법학77-81)동문이 메달리스트에 올랐다. 또 참석자 전원이 참가상으로 골프공 1조와 함께 李墻雨회장이 찬조한 청도 지역의 고품질 햅쌀 1포대를 받았다. 이날 대회는 동창회 산하 골프모임인 관악회가 주관하고 소정의 참가비를 제외한 대회 경비를 관악회 기금으로 지원했다. 관악회 李載亨회장은 “현재 관악회에 5천만원 이상의 기금이 적립돼 있어 춘·추계 대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秀〉



82학번 동기회 바둑 최강 과시

상대동창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10월 18일 서울 흥익동 한국기원에서 제13회 동문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인전 49명, 단체전 12팀 36명 등 총 85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成耆鶴회장이 노스페이스 패딩조끼 18벌, 金相男(경제66-70)기우회장이 기념타월 1백10매 등을 협찬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전 : 우승 40회 吳斗煥(국제경제82-89)·尹同鉉(국제경

제82-89)·張泰熊(국제경제82-86)동문, 2위 24회 金相男(경제66-70)·延健昊(상학66-70)·張泰翼(상학66-70)동문, 3위 26회 吳斗煥(경제68-72)·李廷雨(경제68-72)·崔宰薰(무역68-72)동문 ▲개인전 A조 : 우승 李元雨(경제64-68)동문, 2위 李榮九(경제66-70)동문, 3위 裴基守(경제61-65)동문 ▲개인전 B조 : 우승 金善正(경제54-58)동문, 2위 白鍾敏(상학66-70)동문, 3위 白勳尙(무역66-71)동문 ▲개인전 C조 : 우승 金興萬(무역66-70)동문, 2위 金在軫(경제54-58)동문, 3위 金永廈(경제61-65)동문 〈南〉

宋河永총장 취임 축하 대전·충남지부동창회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10월 21일 대전시 둔산동 지중해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지난 7월 한밭대 총장에 취임한 宋河永(건축74-78)동문의 취임 축하연을 겸해 마련됐으며, 韓珪淳(물리57-60)고문, 吳應準(약학58-62)회장, 金康造(약학64-68)·吳壽丁(의학



66-72)·方在旭(생물교육68-75)부회장, 姜信成(경영75-79)감사를 비롯한 동창회 임원진과 관악오름 曹堉(물리교육68졸)회장 등 산하단체 임원진이 자리를 함께했다.

가을 정기모임 개최 여수지부동창회

여수지부동창회(회장 金庸秀)는 지난 9월 16일 전남 여수시 문수동 자산어보에서 가을 정기모임

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 金庸秀(화학공학71-76)회장, 黃澈(응용수학71-75)수석총무, 金点有(천문82-93)총무, 朴在範(섬유고분자공학84-92)재무를 비롯해 俞鉉秀(전기공학81-85)·張敬準(경영87-92)·具成原(자원공학90-94)·宣基勳(경영90-96)·손정현(응용화학95-99)동문 등 여수 GS칼텍스에 재직 중인 동문들을 포함해 1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이날 金회장이 식사 비용을 찬조했다.

졸업 기념 모교 방문 생활대동창회

생활과학대학동창회(회장 崔明珍)는 모교 생활과학대학(학장 余禎星)과 공동으로 지난 9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졸업 50·40·30·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를 열고 모교를 방문한 동문들은 ‘2014 홈커밍 기념 희망장학금’을 생활과학대학에 전달했다.



제17회 ‘관악대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동문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여러 이웃 동문에게도 널리 알려 많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해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유무형의 헌신과 봉사로 기여한 동문·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해 외 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위의 3개 상에 버금가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해외 동문에게 3년 주기로 시상할 수 있음.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15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5호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전화 : 02-702-2233·팩스 : 02-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15년 3월 20일)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학술·친교 어우러진 홈커밍데이

환대원동창회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李完永)는 지난 10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환경대학원에서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과 친교가 어우러진 ‘2014 동문 홈커밍’ 행사를 개최했다.

공식 행사에 앞서 각 전공별로

세미나, 박사논문 발표회, 포럼 등이 세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학술 행사에서는 ‘메가수도권의 형성과 발전전략(李相大동문)’, ‘북한 인접 중금속들의 쇄쇠산업 식별과 북한에 대한 함의(홍원표 동문)’, ‘도시농업의 문제와 대안(李棟柱동문)’, ‘경의선 폐선부지 공원화 계획(安啓東동문)’ 등 흥미로운 내용들이 다수 다뤄졌다.

2부 행사는 만찬, 李完永회장의 개회사, 환경대학원 崔莫重원장의 축사, 전공별 동창회 소개, 俞炳林 명예교수 특강, 선후배 친교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李完永회장은 “동문들은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가운 친구”라며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환경대학원을 빛내며 열심히 활동하는 동문들을 한 자리에 모아 자긍심을 높이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柳長壽회장 등 새 회장단 선출

기계동문회

기계동문회(회장 吳元錫)는 지난 10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314동 211호에서 본회 林光洙 명예회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아침 일찍 모교에 도착한 동문들은 관악산을 등반하고 11시 회의 장소로 모여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 吳元錫(기계공학71-75)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하면서 젊은 동문과 여성 동문의 참여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 신년회 때 이들을 포함해 1백80여 명의 많은 동문이 참석해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기계동문회 고문인 본회 林光洙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기계동문회 출신 동문들이 주요 위치에서 조국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柳長壽회장(右)이 吳元錫 前회장에게 감사패 전달

축사 후 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 5백만원을 지급했으며, 崔海天(기계공학81-85)학부장에게 활동지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아태위성산업 柳長壽(기계공학72-76)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에는 고려대 朴深秀(기계공학73-77)교수와 현대자동차 梁雄哲(기계설계73-77)연구개발총괄 부회장을 선임했다.

신임 柳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선배님들의 전통이 후배들에게 이어져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동창회가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육대회서 불우이웃 성금 전달

AMPFRI동창회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朴恩熙)는 지난 10월 18일 서울 성동구 행당중학교에서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모교 보건대학원 趙炳熙원장을 비롯해 2백4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제17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朴恩熙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고생한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우리는 한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뜻 있는 행사를 통해 서로 단결하고 화합하는 참된 외식·식품 경영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AMPFRI동창회의 행사는 참여할 때마다 느끼지만 매우 모범적이고 타 동창회의 롤모델



朴恩熙회장(左)과 李峰萬수석부회장(右)이 성동구청 주민생활과 최성연 씨에게 이웃사랑 물품 및 성금 전달

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억이 더 소중해지듯이 좋은 추억을 만드시고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동문들의 뜻을 모아 성동구청에 불우이웃돕기 물품 및 성금 전달식을 가졌으며 29개의 동문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요리경연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첫 문화예술제 성황 AFB동창회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文正旭)는 지난 10월 7일 서울 강남구 임파리얼팰리스호텔 셀레나홀에서 文正旭회장, 모교 생활과학대학 余禎星학장 등 1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제를 열었다.

이번 문화예술제는 동창회 주관

으로 처음 열린 행사로 초청연인의 공연에 이어 이현주(3기)동문의 미술쇼, 유영균(7기)·김미경(7기)동문의 성악공연, 김병희(9기)·서문환(9기)동문의 노래, 여성원우회의 단체댄스 공연 등 동문들이 직접 참가해 무대를 꾸미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를 위해 文회장을 비롯해 李東洛(1기)·崔炳五(3기)·김성미(4기)동문 등 20여 명의 동문이 금품을 협찬했다. (邊)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가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인해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입계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원본의 화원을 관리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몰라자 7F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

S. Noble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중국동창회 李忠求회장
(코리아에프티 중국법인장)

지난 9월 27일 중국동창회 창립총회에서 코리아에프티 李忠求(중문70-74)중국법인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동안李회장은 북경지부동창회장으로 재중국 동문들의 결속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총회에서 만난李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중국 내 지역별로 흩어져 있던 동창회가 하나가 됐다”며 “중국동창회가 나아가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의미 있고 영광스럽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국에는 언제 오셨는지.

“1992년 대우 북경주재원으로 왔으니, 23년 정도 됐네요. 대우에서 10년 근무하다 2003년부터 자동차 부품회사인 코리아

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회원들을 더 많이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집행부와 논의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저는 모교가 자랑스럽고 그때 그 시절이 참 그립습니다. 돌아켜 보면 고난의 시기에 제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것은 다름 아닌 서

“재정 확충·회원 증대에 최선”

에프티 중국법인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朴槿惠대통령이 중국 국민 방문 시 우리 회사를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 동창회 소개를.

“북경지부에 약 1백20명의 한국 국적 회원과 1백50여 명의 중국 국적 회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해에는 1백90여 명이 등록돼 있고요. 그밖에 천진, 청도, 심양, 남경 등 중국 각지에 여러 동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파악하는 중국 국적 졸업생이 1천5백명 정도라 동창회 규모는 계속 확대돼 나가리라 봅니다. 북경, 상해지부가 각각 정기모임, 골프대회, 송년회 등을 열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계획은.

“이제 창립됐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창회가 갖춰야할 홈페이지를 만들고 주소록을 재정비해야겠죠. 안

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있죠. 모교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은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동창회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동창회에 나와 선배들과 대화를 하고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것 역시 모교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앞으로 중국동창회가 모교에 감사를 표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회장은 코리아에프티 중국법인장으로 부임한 후 연매출을 2003년 17억원에서 2011년 4백15억원으로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2008년부터는 중국 자동차 시장 1위를 달리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에 납품하기 시작하며 영업망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2013년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취미로 골프를 즐기며, 부인과 사이에 두 딸이 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수의대동창회 金建浩회장
(애농원 대표)

지난 10월 9일 수의과대학동창회 제23대 회장으로 애농원 金建浩(수의학70-74)대표가 선출됐다.李文漢전임 회장이 66학번이었으니 4개의 학번을 건너뛴 셈이다. 차기 회장인 수석부회장은 74학번 崔準杓동문이 맡았다. 수의대동창회의 젊어지고자 하는 열망이 느껴진다. 지난 10월

모임에 가기 꺼려지기 때문에 이들만을 위한 모임을 조직할 필요가 있어요. 80~90년대 동기회장들과 자주 만나서 방법을 모색해 봐야죠.”

— 기금 모금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국립대에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법인화가 된 지 꽤 됐는데요. 저부터 솔선수범을 하고 주변에 능력 되시는 선배님들에게 기본 좋게 애교심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동참을 이끌어 내야죠. 학교에서도 좋은 행사에 동문들을 자주 불러주시고, 동창회 행사에 교수님들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꼭 하고 싶은 말씀은.

“젊은 세대를 위한 모임 필요”

29일 수의대 개교 67주년 발전세미나에서 신임 金建浩회장을 만났다.

— 앞선 선배들이 많아 부담되시겠어요.

“그렇죠.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선배들 중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동창회에서 좀 더 역동적인, 젊은 동창회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 계속 4년 후배에게 넘기게 되나요.

“崔準杓동문 이후에는 2년 정도로 범위를 좁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후배들은 70년대 학번도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글썽요, 계속 이야기해 나가야죠.”

— 그런 열망에 부응을 하셔야 하는데.

“자주 모여야 해요. 학교도 자주 와야 애교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등산대회와 골프대회도 봄, 가을에 하려고요. 특히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동창회 내에 소그룹을 만들고 싶어요. 너무 나이 차이가 나면

“동문들의 참여가 제게 가장 큰 힘입니다. 지난해 대한한돈협회장 선거 이후 농장 일에만 전념하려다 동창회장을 맡았어요.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회장은 서울 양정고교 시절 쫓소를 키우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모교 수의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경기도 여주에서 목장과 대동물 진료 전문 병원을 운영하다 1985년 일본 북해도 낙농학대학에서 번식학 연수 후 1988년 모돈 70마리로 양돈업을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 양돈업에 몰입해 현재 모돈농장과 비육농장 두 곳에서 4~5천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그외 ‘돈마루’라는 브랜드와 하남시에 ‘시인과 농부’라는 ‘안테나숍’을 운영 중이다. 대한한돈협회 경기도지회장과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인과 사이에 미혼인 1남1녀를 두고 있다. (南)



李順載회장이 ‘流民街’ 제작발표회에서 고사를 올리고 있다.

12월 26일 ‘流民街’ 공연 개막

연극동문회

연극동문회(회장 李順載) 부설 극단 관악극회는 지난 10월 24일 서울 충정로 삼창빌딩 10층 동문회 사무실에서 李順載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정기공연 ‘流民街’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유민가는 일제 때 동경 빈민가를 무대로 항일실향민의 삶의 애환을 다룬 작품으로 서울 관악문화관에서 12월 26~28일, 서강대 메리홀에서 내년 1월 8~17일 공연한다.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鄭漢龍(물리64-68·미학73졸)동문은 “유민가는 1968년 모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찾은 작품으로 46년 만

에 다시 공연을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우리 같은 아마추어 극단에게 굉장히 좋은 텍스트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5기 동기회 골프우승
FNP동창회

식품영양산업CEO과정동창회(회장 崔順泰)는 지난 10월 6일 경기도 안산 제일CC에서 崔順泰회장을 비롯해 1백3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경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이명춘(3기)·정남도(5기), 준우승:최선철(4기) ▲메달리스트:이동주(6기) ▲단체전 우승:5기 동기회, 준우승:1기 동기회, 3위:3기 동기회 ▲에버그린상:吳永喆(1기)·신봉석(3기)·노영수(5기) (邊)

• 1 대 1

전쟁에서 상관이 명령을 했다.
“병사들아! 작군은 우리 병력과 맞먹는다. 알았느냐!”
“1 대 1로 겨뤄라.”
그러자 한 병사가 기운차게 말했다.
“저는 두 놈을 말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사가 말했다.
“그럼, 저는 둘려보내 주십시오!”

• 채용 조건

여비서를 채용하려는 사장이 후보 3명의 지원서를 검토했다.
첫 번째 후보는
“1분에 60단어 타이프 가능,

출근시간 엄수’
두 번째 후보는
“1분에 100단어 속기, 성실함”
세 번째 후보는
“먼 발소리만으로 사모님 식별 가능”이라고 썼다.
사장은 주저없이 세 번째 후보를 채용했다.

• 천생연분

어느 부부가 외식을 하려고 집밖을 나왔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아내: “이를 어찌죠? 다리미코드를 빼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남편: “걱정 마, 나는 편도하다가 수도꼭지를 안 잠그고 왔으니깐 불 날 일은 없을 거야.”
(독자재보 환영)

아름다운 기업-금호아시아나



당신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 퍼스트 스위트
전 좌석에 자유로움을 더한 비즈니스 스마트룸
기내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별빛과 쾌적한 드레스룸까지
지금, 아시아나380의 특별한 비행을 만나보십시오

Be special.

ASIANA 380
Special Edition



도어가 장착된 완벽한 스위트룸 First Suite | 출입이 자유로운 Business Smartium | 밤하늘의 별빛을 선사하는 Star Light | 스타일을 지켜주는 Lavatory / Dressroom

아시아나항공 
A STAR ALLIANCE MEMBER 

 **HYOSUNG**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비즈니스 정의 IT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용 IT인프라 솔루션의 리더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Total IT Solution Provider

- 스토리지 시스템
-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 가상화 솔루션
- 전자문서 및 아카이빙 솔루션
-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CCTV용 카메라 등)
-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 Backup & Recovery 솔루션 / 재해복구 솔루션
- 전사 콘텐츠관리 솔루션 HECM(전자문서관리 / 파일집중화 / SAP아카이빙 솔루션 등)
- 컨설팅 서비스

대표이사 전홍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24 (청담동) TEL 02-510-0300(대) FAX 02-547-9998 www.his21.co.kr

HITACHI
Inspire the Next
© Hitachi Data Systems

화제의 동문

한양대 鄭冀人 명예교수

‘氣골프 건강법’으로 유명한 한양대 경영학부 鄭冀人(영문60-64)명예교수가 최근 ‘경제대왕 숙종’(매일경제신문사刊)을 펴냈다. 張禧嬪과의 관계만 부각되던 肅宗을 경제 관점에서 재조명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호암재단 孫炳斗(경제60-64)이사장은 “3백년 전에도 배움은 백성을 위해 경제개발에 성공한 임금이 있었음을 알고 자긍심이 생겼다. 한국경제의 개발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학생과 직장인, 공무원, 군인, 정치가들에게 일독을 권한다”고 추천했다.

집필 몰두하다 치아 3개 빠져

지난 10월 23일 만난 鄭동문은 “정년퇴임을 하고 뭔가 보람된 일을 찾다가 조선왕조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는 생각에 역사를 공부하다 숙종을 다시 보게 됐다”고 말했다.

“권력투쟁이나 음모술수만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본 숙종은 화폐 경제를 정착시키고 사회 인프라 구축으로 조선 후기 시장경제 활성화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숙종 때 쌓인 부를 바탕으로 화려한 영·정조 시대가 가능했던 겁니다.”



‘장희빈의 숙종’, 경제대왕으로 재조명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 ‘氣골프’로 극복

소설에서 장희빈은 숙종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준 인물로 그려진다. ‘악녀’의 이미지가 강했던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다.

“장희빈의 ‘악녀’ 이미지는 서인들이 나중에 꾸며낸 이야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합니다. 장희빈은 대단한 驚世의 여걸이자 시장원리에 뛰어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9살 때부터 장사와 일본의 역관이었던 아버지로부터 개화된 사상을 배웠던 인물이지요. 때문에 시장에서 일하는 게 낯달랐고, 22세에 후궁으로 들어가면서 숙종의 경제적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鄭동문은 교수직에서 은퇴한 2006년부터 8년간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사료

를 뒤적여 당시 화폐가치와 물가, 인건비 등 경제 관련 데이터를 뽑아낸 뒤 역사적 상상력을 가미해 소설을 완성했다.

“사실 숙종 대의 사료에 국가경제의 근원인 국내총생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사료를 뒤지며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는 것을 모아 ‘현대적 경제자료’를 만들었죠. 하루 10시간 이상 몰두하다 치아를 세 개나 뽑아야 했습니다.”

鄭동문은 25년간 강단에서 국제통상론과 상사증재론 등을 강의해온 경영학자다. 늦깎이 소설가 데뷔에는 학부시절 영문학 공부 큰 도움이 됐다. 대학시절 미친 듯이

읽은 소설과 틈틈이 해온 습작이 자양분이 된 것이다.

“모교서 국가유공자 기려야”

영문학도에서 경영학자가 된 배경에는 월남전 참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학 졸업 후 미국 대학으로 가려 했지만 군 미필자는 유학이 어려웠다. 기왕에 가야하는 군대, 제대로 가보자 해서 해방대 장교모집에 지원했다. 그때만 해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전사자 보충으로 베트남에 가게 됐어요. 해방대 지원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왕에 가

는 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임무를 마치고 오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간경화와 심혈관질환이 생겼어요. 7년간의 군 생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갔지만 새까만 후배들이 박사과정에 있는 걸 보고 쫓 수 없었고, 병든 몸으로 취업은 할 수 없어 당시 인기 있던 경제학으로 방향을 바꿔 그 길을 걷게 된 거죠.”

그와 동시에 고엽제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전호흡 수련도 시작했다. 그걸 골프에 접목해 나온 것이 ‘氣골프 건강법’(조선일보사刊)이다.

“40년 정도 매일 새벽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련을 했어요. 10여 년 전에 완전히 병에서 해방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골프도 건강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됐죠. 공을 칠 때마다 단전에 힘이 들어가니까 단전호흡으로 쌓인 내공과 외공이 일치가 돼 더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쓴 게 ‘氣골프 건강법’입니다.”

국가유공자인 鄭동문은 모교가 하버드대나 예일대 등 미국의 유명 대학들처럼 국가에 헌신한 동문들을 위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버드대에 가보면 정문 가장 가까운 곳에 2차대전 등에 참전한 동문 명단이 새겨진 기념물이 있잖아요. 이 학교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큰 기여를 했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서울대도 우리나라 대표 대학으로서 꼭 갖춰야 할 기념물이죠.”

鄭동문은 매형 權櫟赫 前모교 총장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 崔圭順(가정교육61-65) 동문을 만나 1남 2녀를 두고 있다. 權 前총장이 아내의 외삼촌이기도 하다. (南)

사막 마라토너 禹憲基 동문

환갑이 넘은 나이에 사막을 달리고, 그 달리기기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올해 67세의 사막 마라토너 禹憲基(영문67-74)동문 이야기다. 禹동문은 2011년 이집트 사하라를 시작으로 2012년 미국 애리조나, 2013년 나미비아 나미브에서 사막 마라톤을 완주했다. 이어 네 번째 도전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잉카 트레일 고산 사막 마라톤대회에 출전했다.

지난 10월 말경 대회를 열흘 가량 앞두고 만난 禹동문은 전날 고된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사막 마라톤은 식량과 침낭 등의 필수 장비가 든 10kg 정도의 배낭을 짊어지고 하루에 약 40km씩, 일주일 동안 2백50~3백km거리를 달리는 여정이다. 밤새 꼬박 달리는 ‘룽데이’ 구간도 있다.

禹동문은 “이번 대회는 지형 특성상 전체 2백km로 다소 거리는 짧아졌지만, 해발 3천~4천m 고지대에서 고소 증세를 극복하고 시속 6km 이상의 빠르기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짐작하게 출전을 준비하는 모습이였다.

약골 체질 산악부서 극복

작지만 다부진 체구의 禹동문은 타고난 약골 체질을 운동으로 극복했다. 학창시절 체육 시간이나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했던 그는 모교에 입학하자

마자 산악부에 가입했다. 20세부터 쉬지 않고 꾸준히 산에 오른 덕분에 지구력만큼은 누구 못지 않게 강해졌다. 지금도 까마득한 후배들과 어울려 등반을 즐긴다. 암벽등반, 스키, 산악자전거 등을 섭렵하고 50대 중반에 4시간 3분의 기록으로 일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했다.

무역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은퇴하며 禹동문은 ‘도전하면서 즐겁게 살고, 나누면서 보람되게 살아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자’는 인생 2막의 목표를 정했다. 반년간 준비 끝에 사막 마라톤에 도전했다. 그가 1km를 달릴 때마다 모교 영어영문학과 동문과 봉사단체 지인, 친구들이 1백원씩을 기부했다. 매 대회마다 1백~3백만원씩 모인

60대 후반에 4개 사막 마라톤 도전 달리고 베푸는 아름다운 인생 2막

돈으로 파키스탄 오지에 고아원을 지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을 접하면서 시작한 이 자선 모임은 최근 ‘아름다운 유산’ 재단으로 정식 출범했다.

“‘아름다운 유산’은 앞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계획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열어가는 데 무척 중요한 지역이지요. 내년에는 중앙아시아 아동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시작할 겁니다. 한국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처럼 글



로벌한 민간 비영리단체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禹동문에게 사막의 매력을 묻자 ‘황량한 아름다움’이라고 답했다. 고독한 싸움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을까. 禹동문은 덤덤하게 ‘막상 가면 끝까지 하게 되더라’고 말했다.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 안에 남은 10km를 가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걷고 뛰어서 피곤한 상태인데도 신기하게 걸음이 빨라져서 시간 내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거리가 맞나?’ 하는 의심이

화제의 동문

들 정도죠. 누구나 갖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인간의 잠재적인 능력이 사막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걸 느껴요.”

파키스탄에 고아원 설립도

사막 마라톤에는 고령자 연령 제한이 없다. 다만 참가자 모두가 건강 증명서와 ‘문제가 생겨도 주축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을 제출한다. 禹동문은 “사막 마라톤은 순발력이나 폭발적인 힘보다 지구력을 요하기 때문에 나이는 사람도 충분히 할 만하다”고 말했다. 관절에 무리가 오기 쉬운 만큼, 평소 꾸준히 등산이나 걷기를 해온 사람에게 한해 1년 가장 꾸준히 준비하면 도전해볼만하다는 그의 조언이다.

각종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禹동문에게 ‘환갑 넘어 암벽 등반만은 하지 마시라’고 염려했던 가족들도 ‘달리는 아버지’를 응원해준다고 한다. 강연과 멘토링 등을 통해 ‘5060세대’의 지혜를 나누는 데도 적극적인 禹동문은 “내년에는 ‘아름다운 유산’ 사업자 파키스탄에 오래 머무를 것 같다”면서 “시간이 가면 정글 마라톤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실크로드 자전거 횡단은 언제고 반드시 시작할 것”이라며 끝없는 도전 의지를 보였다. (秀)

아이넷 방송 그룹

당신의 평생친구
‘100일부터 100세까지’



inet-TV

- inet production,Ltd
- inet insu,Ltd
- inet live,Ltd
- inet Box,Ltd

inet-life

- 아이넷 상조
- 아이넷 여행, 크루즈
- 아이넷 유학, 어학연수
- 아이넷 웨딩
- 아이넷 행사 (집안, 기업, 각종 이벤트)



박준희

아이넷 방송 그룹 회장
자연과학대학(SPARC)총동창회 회장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발전기금 조성전시회

한국 현대미술의 궤적 II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미술대학 발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늘 성원해주신 서울대학교 가족 여러분들께 훌륭한 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하실 수 있는 기회와 연말연시 미술작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전시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동문 중견작가들과 미술대학 현직 교수들의 멋진 소품들로 구성되어 보다 많은 동문들과 후원자, 학내 구성원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시회 수익금은 미술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여러분께서 구입하신 작품구매 가격의 50%는 발전기금으로 기부되어 법정 기부금으로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으시고, 기부자로서 예술복합연구동에 존함을 영구 보존하도록 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귀한 걸음 하시어 좋은 작품들을 즐기어 감상하시고,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술대학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시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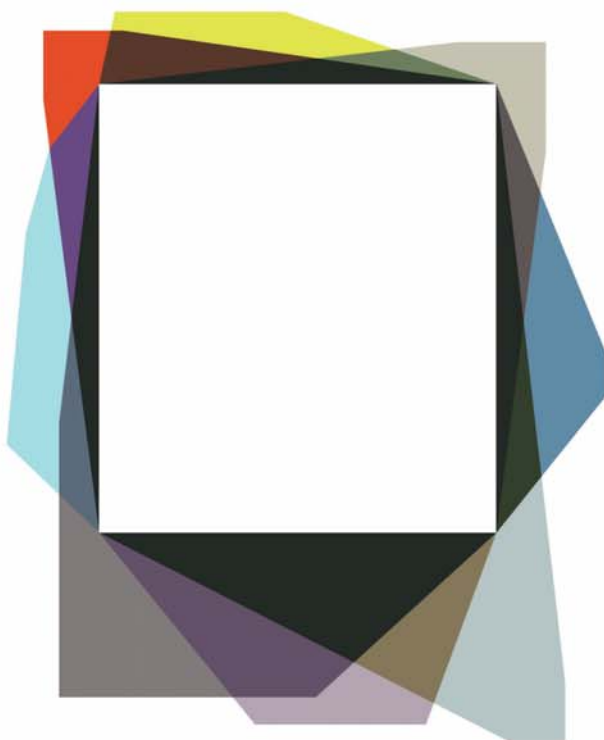
2014년 12월 5일 (금) - 12월12일(금) 10:00 - 18:00
(토요일, 일요일에도 개관합니다.)

전시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전시실

문의

서울대학교발전기금 02) 871-1624
미술대학 대외협력실 02) 880-7450/7453



“100세 시대 시니어들의 ‘홀로 서기’ 위한 환경 제공”

동문을 찾아서

시니어 어치브먼트 姜慶植 공동대표

지난 10월 7일 100세 시대를 맞아 시니어들을 위한 단체인 ‘시니어 어치브먼트’(Senior Achievement·SA)가 발족했다.

1천2백명의 창립회원을 둔 시니어 어치브먼트의 초대 공동대표로 선출된 姜慶植(법학55-61)동문을 10월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동부금융센터에서 만

났다.

단체 창립 취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우리나라도 이제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도는 아직 환갑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제는 시대에 맞게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단체를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담 : 申然琇(동아일보 논설위원)논설위원

— 설립 취지는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1960년대 평균 수명이 50대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50대만 되면 노인 행세를 했고, 환갑이 되면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이 됐습니다.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모든 제도는 환갑시대 그대로입니다. 과거에는 인생을 셋으로 나눠 공부하고, 일한 후 은퇴해 여생을 보냈지만,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일이나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교육 제도, 노동시장 제도 등 많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100세 시대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발족하게 됐습니다.”

— 지난 10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셨는데.

“창립 발기인이 1천2백명입니다. 사실은 1만명 발기인을 모아 창립하려 했는데, 우선 만들어 놓고 활동하면서 점차 회원을 늘려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천2백명의 회원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창립총회에는 2백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활동 제안과 토론 등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회원 가입에 제한이 있나요.

“‘시니어’라고 하니 많은 분이 노인들의 모임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니어는 물론 앞으로 시니어가 될 사람들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이, 성별 등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다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은 필수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있어야 합니다.”

—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2002년에 386세대가 펼치는 정책을 보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미국의 ‘주니어 어치브먼트’를 국내에 도입했었습니다. 주니어 어치브먼트의 모토가 ‘청소년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성공이다’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이제는 ‘시니어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성공이다’는 뜻으로 ‘시니어 어치브먼트’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활동에서도 주니어 어치브먼트와 서로 연계해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적·개방형 참여마당…창립회원 1천2백명

재무부 장관·경제부총리 역임…경제성장 기여

—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60대에 강제 은퇴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은퇴라는 것은 각자가 선택할 문제이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능력이 있음에도 나이 때문에 은퇴를 강요당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에서 ‘餘生’은 없습니다. ‘生’이 있을 뿐입니다. 이젠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인 문제를 다룬 ‘퇴직 공간’이란 책을 보면 퇴임 후 노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처지로 나와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많은 노후유를 갖고 있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지금처럼 버려진다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장에

• 姜대표는

1961년 모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시러큐스대 맥스웰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젊은 시절 경제기획원을 거쳐 재무부 차관·장관을 역임하며 경제관료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3선 국회의원,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1991년 민간 연구기관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과 2002년 JA Korea를 설립·운영해오는 한편 동부그룹 상임고문직을 겸직하고 있다.

모교 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趙三珍(기약58-62)건국대 명예교수와의 사이에 3남1녀를 뒀다.

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 장애가 되는 요소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가장 큰 것이 연령제한이죠. 정년퇴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과거에 합격한 최고령이 86세였습니다. 90세 넘어서까지 재상을 지낸 분도 계시고요. 일하는 데 있어 나이가 장애요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SA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먼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명석을 깔아놓는 거죠. 자율적·개방형 참여마당이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지요. 金仁圭 이사장의 경우 언론인 출신으로 폭넓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창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같이 이끌게 됐습니다. 시니어 어치브먼트 대표의 임기가 3년입니다. 딱히 셋이서 역할을 나누는 부분은 없습니다. 1년씩 돌아가며 맡는 것도 좋을 것이라 봅니다.”

— 경제관료 시절 기억에 남는 일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와 재무부 장관으로 일할 때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만큼 일한 보람도 컸었습니다. 기획차관보 때 중화학 건설의 축소 조정, 수입 개방, 가격에 대한 행정규제 폐지 등 성역시됐던 정책분야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 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안정화 시책’으로 채택됐고, 10·26과 같은 격변기를 지나 ‘안정, 자율, 개방’은 새로 들어선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가 됐습니다. 그 후 물가는 3% 수준으로 안정됐고 경제 운용 방식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자율과 국내 시장을 개방하고 공정거래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실명제 등 내국세제 개혁과 관세제도 정비, 통관 수입자유화 추진 등 개혁 작업을 직접 할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고 보람입니다.”

—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은퇴를 한 동문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시니어 어치브먼트에 참여해 열심히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세운 모토가 ‘Alone(홀로) Together(함께)’입니다. 시니어들은 자녀들에게 기대지 말고 각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시니어 어치브먼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마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진=邊廷朱기자·정리=林香默기자)

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 텃밭 가꾸기’ 사업을 제안하는 회원이 있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시니어 뉴스’도 모바일로 발행하고 있고, 11월 말부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해 더 다양한 활동 모임이 생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崔鍾燦(무역 68-72)원장, 한국전쟁기념재단 金仁圭(정치69-73)이사장과 공동대표 체제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지.

“사실 저는 직접 대표로 나설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SA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의견이 많아 공동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현재 이곳의 실무적인 일을 NSI 연구원들이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崔鍾燦원장의



보고 싶은 사람이라도 마음대로 못 보면서
어떻게 아바만 보고 싶었을까!



엄마! 아바 뭘 믿고 결혼한거야?

결혼, 믿음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당신의 결혼
이제 믿을 수 있는 **대명그룹의 결혼정보회사**
대명위드원과 함께 하세요.

사람중심 신뢰우선의 대명그룹이
국내 최고 서비스 역량을 기반으로
만남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대 동문 및 자녀분들께 특별 할인 혜택과 함께
전담 커리어매니저가 상담에서 결혼까지 책임집니다.

대명레저산업(2014 현재 대명리조트 국내 리조트 1위, 오션월드 세계 워터파크 4위)
대명홀딩스 | 대명건설 | 대명엔터프라이즈 | 대명코퍼레이션 | 대명라이프웨이 | 대명복지재단

대명위드원 1588-3883

전세 걱정 끝! 내 집에서 사는 행복

3.45%

최저 금리

최고의 내 집 마련 파트너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www.hf.go.kr

■대출대상: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 (임시적 2주택자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집값의 최대 70%)

(*'14년 10월 현재 금리)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금리	3.45%	3.65%	3.75%	3.8%

*아임e-보금자리론은 기준 금리에서 0.1% 추가 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1688-8114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진원(건축학과 73入)



국회의원 동작을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동작구가 정거장이냐 40년산 최병례가 참 일꾼이다.

최 병 려

(HPM.보건의료정책 21기)

前 국정자문위원, 중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 유쾌한 복지 · 통쾌한 경제 · 경쾌한 교통 · 명쾌한 교육 · 상쾌한 환경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서울기독대학 석사 졸업
• 사회복지학과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
• 전)서울대학교 서울보건대학원 21기 학생회장
• 명예보건학박사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자격증
• 동작구 문화원 이사
• 현)샘터 출판사 사장

• 방송통신대 법학 휴학
• 전)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6기 고문
• 전)중앙대학교 대학원 6기 부회장
• 전)숭실대학교 사회대학원 40기 고문
• 전)강남대학교 신학대학원 고문
(방송통신대학원 법학과 휴학)
• 전)참여연대 대의원, 현)녹색연합 총재

• 고등학교 졸업시 교육감상 수상
• 대통령 표창, 대통령 감사장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우수 표창
• 전)17대 대통령 예비후보등록
• 전)동작을 부위원장 중앙위원, 국정자문위원

TEL. 02. 533. 7214 FAX. 02. 533. 7213 Mobile. 010. 9118. 2252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9호 선화 보유자 성각 합장

시간을 이기는 피부과학, 형태를 초월한 생명과학 한국콜마의 다음은 뭘까?

노화를 이중으로 완화하여 주름진 눈가를 개선하는 일,
10년의 피부나이까지 초월하는 기술, 액체를 캡슐에 담은 제제기술-
이 모두가 당신을 위해 화장품과 의약품을 만든 한국콜마의 발자취입니다.
생각의 한계에 도전하며 수 십 년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왔듯,
한국콜마는 오늘도 다음 세상의 피부과학과 생명과학을 연구합니다.

당신을 향한 변화, 한국콜마



kolmar
한국콜마



*혁신성장기술 : 국내 유일 제제 기술인 리드캡 기술로 만들어지는 캡슐기술로 혁신 생명이
부드럽게 제제에 더 빠르게 흡수되도록 돕는 캡슐형 약제입니다.
약물의 안정성과 양순성을 향상시켜 약의 변질을 막고 효능을 높이는 신개념 제제기술입니다.

화장품 · 의약품 · 건강기능식품 CDM 토탈서비스 컴퍼니 한국콜마는 바이오-노 기술 연구하는 기업 · 색조 연구, 의약품의 유전 테크놀로지를 실현하는 생명과학 연구소를 비롯,
발효생명연구소, 식의약품연구, 예스24 R&D 센터 등 세계적인 R&D 연구소에서 당신을 향한 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www.kolmar.co.kr



개학 119주년·개교 68주년 기념식

“학문의 중심으로서 정체성 확고히 해야”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李禹煥동문

모교 소식

모교(총장 成樂寅)는 지난 10월 14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개학 119주년·개교 6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모교 權壽赫·朴奉植·趙完圭·李長茂 前총장과 成樂寅총장 및 보직교수, 본회 徐廷和 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 부회장 등을 비롯해 교직원, 재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제24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세계적인 예술가로서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모교의 명예를 드높여온 서양화가 李禹煥(회화56입)화백이 선정됐다. 모교는 “李禹煥화백의 수상자 선정은 묵묵히 한 분야에서 평생을 헌신해오며 대가의 반열에 오르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李禹煥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수여식 및 수상소감 발표는 생략됐다. <프로필 참조>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에 앞서 간호대학 韓京姬선임주무관

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禹英淑선임주무관이 40년 근속, 영어영문학과 申正鉉(영문70-77)교수 등 60명이 30년 근속, 영어영문학과 鄭相俊(영문79졸)교수 등 75명이 20년 근속 표창을 받았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에 매진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학내에 건전한 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관악봉사상’과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상’에 대해 시상을 진행했다.

관악봉사상 수상자로는 강태호(인문학부, 글로벌사회공헌단 봉사활동 및 사회적기업동아리 활동)·강바다(정치외교학부, 나눔악단 창단 및 활동, 법률소비자연맹 활동)·한진석(사회복지학과, 다양한 봉사동아리 참여 및 활동)·이동기(화학실험공학부, 공과대학 사회봉사센터 활동)·최교윤(산업공학과, 모교 공식봉사단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 활동)학생 등 총 5명이 선정됐다.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시상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떨림, 이런 기분 느껴 보신적 있나요’를 쓴 정치외교학부 현연지 양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자유전공학부 김광우 군이

우수상, 이강원(경영학과)·안다영(약학과)학생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이날 成樂寅총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68년을 돌아보면 모교는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왔다”며 “우리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창의적 의제를 발굴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학문의 중심으로서 모교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趙完圭 前총장은 “세계 명문대학들이 명문일 수 있는 것은 동문들의 모교 발전을 위한 절대적 기여가 있기 때문”이라며 모교 발전에 있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본회 徐廷和회장은 축사를 통해 “모교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나라 최고학문의 전당으로서 본연의 위치를 충실히 견지하고 국가 지도적 인재를 육성했다”며 “학교, 동문, 학생 삼위일체의 화합 속에서 우리 모교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가는 진전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사·축사 요지 참조> (秀)

成樂寅총장 기념사 <요지>

지금 이 시간 서울대학교는 인간이 성, 실천, 판단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이 설정한 쟁점과 문제의식을 뒤쫓기만 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고, 이제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쟁점과 의제를 설정해 주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학 본연의 임무인 지식창조와 인재양성, 지성적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체제로 전환했지만, 아직도 이에 걸맞은 새로운 정체성과 학교의 장기 발전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대학교에 부여된 또 다른 시대적 소명인 ‘선한 인재’ 양성에도 우리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성과 함께 공공성으로 무장된 선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합니다.



徐廷和회장 축사 <요지>

모교는 최근 발표된 영국의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31위로 오르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총동창회는 그 근원이 되는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기 위한 서울대학교 역사기념관을 지원하고, 오는 2015년 모교 개학 120주년에 맞춰 서울대 120년사 편찬사업을 명백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재학생에 대한 장학사업도 금년에 처음으로 20억원 규모를 넘어서게 지원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결연프로그램을 세워 단순히 등록금을 지원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멘토링을 통해 후배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대인은 국가와 민족과 사회의 미래에 절대적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지금까지 절대다수의 지도층으로 국가 경영을 책임져 왔고, 모든 국민이 서울대학교를 그 희망과 그 기대로 마음에서의 지원을 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成樂寅총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학’,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는 2020-20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총동창회는 우리 모두가 成樂寅총장님께서 제시하신 이 비전을 그려나가는 일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趙完圭 前총장 축사 <요지>

68년간 줄곧 서울대학교 땅을 밟고 살아온 한 사람으로 오늘은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힘은 국력이고 국력은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발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학교는 국가의 동량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노벨상 수상자 이름이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은 서울대학교를 쳐다봅니다.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최고 영재들의 집합소이고 국제적 수준인 교수들의 연구역량과 교육역량에 크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지식집단인 서울대학교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만 있다면 세계 학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법인체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활용할 수 있다면 대학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대학 식구들의 결단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동문들의 모교 발전을 위한 각별한 인식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발전이 가능했던 점을 감안할 때 동문들은 보은차원에서 모교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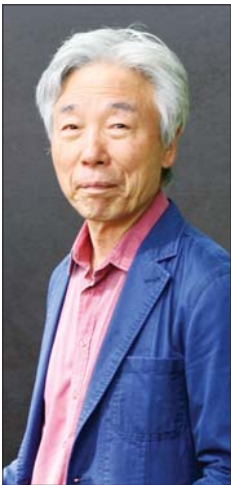
한국 대표하는 세계 미술 거장

일본·프랑스 등지서 작품활동

李禹煥화백 프로필

1956년 모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한 李禹煥화백은 국내 유명 미술관과 베네치아, 상파울루, 파리 등 국제 비엔날레를 비롯해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프랑스 베르사유궁 초대전 등 전 세계를 넘나들며 50년 이상 왕성한 작품활동을 해왔다.

일본의 획기적 미술운동 ‘모노파’를 창시한 李禹煥은 동양철학을 근간으로 동·서양의 조화를 모색하는 예술세계를 통해 세계 미술사에 큰 획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타마미술대 교수와 프랑스 국립미술대 객원교수 등을 맡아 후학 양성에 헌신했으며, 2010년 일본 가가와현에 개인 미술관인 ‘이우환 미술관’을 개관했다.



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또 한 유네스코 미술상, 일본미술협회 세계문화상, 프랑스 레지옹도뇌르 훈장, 금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관악캠퍼스 종합체육대회

체육 활성화·화합의 장 열려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과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등지에서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교직원 이 참여하는 종합체육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종합체육대회는 축구·야구·농구·테니스·배드민턴 등 다

섯 종목의 경기가 치러진 가운데 1천7백여 명의 선수들이 개인전 및 단체전에서 열띤 시합을 벌였다.

지난 9월 22일 열린 개회식에는 모교 金正漢(농화학75-79)학생처장과 崔義昌(체육교육82-86)체육부장 등 주요 인사와 재학생 2백여 명이 참석했다.

金正漢학생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함께 어울려서 호흡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자 단과대학의 체육활동과 학교 체육의 기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자리”라며 “각자 소속한 단과대학, 동아리를 대표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준희(체육교육10입)·이효진(체육교육14입)학생이 선수대표로 선서했으며, 무용부 재학생의 축하 공연 및 경품 추첨이 진행됐다.



기부자 위한 ‘감사의 밤’ 행사

공과대학

공과대학(학장 李建雨)은 지난 10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 대강당에서 李基俊·李長茂 前총장, 李惠日연구부총장, 李建雨학장, 尹友錫공대동창회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과대학 발전에 힘써준 동문 및 관계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李建雨학장의 인사말 및 현황 발표, 尹友錫공대동창회

장의 축사, ‘Vision 2010’ 사업 기금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G.L.P)’ 참가학생의 감사인사 및 활동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李建雨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받는 기쁨보다 나누는 행복을 선택하신 많은 분들의 손길이 공과대학을 ‘글로벌 산업과 사회의 지도자 육성’이라는 목표로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교 국악과 실내악팀인 ‘비움’의 퓨전국악 공연과 함께 만찬이 진행됐다.

중소기업청(청장 韓正和)이 지원하는 ‘대학기업가센터’ 출범식이 지난 10월 8일 관악캠퍼스 경영대학 수펙스홀에서 모교 成樂寅총장, 韓正和청장, 벤처기업협회 南閔佑회장, 한국기업가정신재단 黃喆周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학기업가센터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모교 경영대학 金炳道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하고 재능이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 동기 부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향후 진로선택 1순위가 창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成樂寅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과 기술창업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고 창업에 우호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



대학기업가센터 출범

창업 육성 및 인재 발굴 지원

는 데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기업가센터는 모교를 비롯해 한양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숙명여대, 인하대 등 총 6개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다.

모교 대학기업가센터 전담기관인 경영대학은 지난 2009년 경영연구소 내에 창업경영연구센터를 개소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 벤처경영학 연합전공을 신설하고 교과과정을 운영 중이다.

호주 대법원장 초청 특강 법과대학

법과대학(학장 李元雨)은 지난 10월 1일 관악캠퍼스 우전법학관에서 호주 로버트 쉐튼 프렌치(Robert Shenton French)대법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법과 헌법에 의한 지배’(The Rule of Law and the Constitution)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 프렌치 대법원장은 최근 호주의 법학교육 트렌드와 ‘아시아-태평양 사법개혁 포럼’과 같은 다자간 협정을 통한 지역적 사법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표본실의 동물들’展 박물관

박물관(관장 李鮮馥)은 지난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의과대학 해부학연구실과 공동으로 ‘표본실의 동물들-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해부학연구실 소장 동물 표본’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평소 접하기 힘든 야생동물의 표본을 직접 살펴보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의과대학은 그동안 야생동물 사체를 수집·작업함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너구리와 고라니 골격 표본 컬렉션을 완성했다. 〈香〉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만남이 아니라 결혼이다.
느낌만으로는 모르는 일.
조건만으로도 안 되는 일.
누가 누구와 만나야 하는지
사람을 알아야 하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잘할 수 없는 일.

결혼해두

• 국내지사 서울/수원/인천/천안/대전/전주/광주/대구/부산/울산/창원 • 해외지사 뉴욕/LA/뉴질랜드

메듀오
1577-8333

풍림무약 李政錫사장

신약개발센터에 51억원 쾌척



李政錫사장, 成樂寅총장

제약기업인 풍림무약(사장 李政錫)이 지난 10월 29일 모교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에 51억원을 쾌척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 모교 成樂寅총장, 柳根培 기획부총장, 발전기금 李哲洙상임이사, 약학대학 李奉振학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李政錫사장이 약학대학 신약개발센터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成樂寅총장은 “우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온 풍림무약과 세계를 선도하는 모교 약학대학의 이번 협약식은 우리나라 약학 분야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금을

출연한 풍림무약 李政錫사장 및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李政錫사장은 “서울대와 본격적인 신약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돼 개인적으로도 기업 차원에서도 기대가 크다”며 “풍림무약은 계속해서 기존 화학 의약품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치료영역에 적용이 가능한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1974년 창립한 풍림무약은 40여 년간 제약·식품 원료 등의 고부가가치 원료를 국내 시장에 공급해왔다. 1991년 의약품 제조공장 준공 및 2006년 중앙연구소 설립을 통해 개량신약, 천연의약, 복합신약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 연구 및 제조에 매진해왔으며, 지난 9월에는 모교 신약개발센터에 RICHWOOD R&D센터를 개소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학생의 소리

통일을 기원하며 달리는 두 바퀴

저는 러시아에서 4박 5일간 자전거의 두 바퀴만으로 8백 27km를 달리고 돌아온尹숨이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자전거를 타게 된 이유는 조선일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 세계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주최한 ‘One Korea New- Eurasia 자전거 평화 대장정’ 프로젝트에서 소구간 원정대원으로 선발됐기 때문입니다. ‘원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평화 원정대’는 지난 8월 13일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광장에서 출발해 1백일간 1만5천km의 대장정을 거쳐 11월 20일 한국에 도착하게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8명의 원정대원과 함께 하게 된 4박 5일간의 여정은 제게 매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꿈은 통일이 된 후, 너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평양을 지나 백두산 정계비를 보고 오는 것이란다.” 그 때부터 저는 한반도의 통일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원했고 이번 기회에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참여하게 된 구간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백km이상씩

자전거를 타다 보니 스키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제 체력에도 한계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곁에서 같은 뜻으로 달리고 있는 원정대원분들과 저와 같은 구간에서 달리신 李在五의원님이 도와주셨기

尹 숨 이

(체육교육 10입)

원코리아 뉴라시아 자전거 원정대원

에 힘을 내어 무사히 라이딩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자전거 원정을 통해서 통일이 하루빨리 오기를 더 간절히 바라게 됐고 내년에 떠나게 될 자전거 세계 일주에서 한국을 알려야겠다는 역센 다짐을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젊음이 부디 현명한 선택이 되길 선배님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당당한 여성이 되겠습니다.



뒷줄 좌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유문두 씨, 李在五국회의원,尹숨이 양

바바패션 文寅植회장

인문대에 학술기금 1억원

바바패션 文寅植(AMP 72기·AFP 12기)회장이 지난 10월 13일 모교 인문대학에 1억원을 기부했다. 이날 成樂寅총장과 文寅植회장, 柳根培기획부총장, 인문대학 張在盛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고 文寅植회장이 조성한 기금을 인문대학의 학술연구 활동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成樂寅총장은 “文寅植회장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린다”며 “인문대학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文寅植회장이 이끄는 바바패션은 여성 패션브랜드 ‘아이잔바바(IZZAT BABA)’, ‘지고트(JIGOTT)’, ‘아이잔 컬렉션(THE IZZAT COLLECTION)’ 등 국내



成樂寅총장, 文寅植회장

브랜드와 수입브랜드를 포함해 총 9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과 장학 사업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文寅植회장은 “모교 인문대학의 발전과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사용되길 바란다”며 “계속해서 나눔의 경영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외 의료봉사활동
모교 병원

모교 병원(원장 吳秉熙)은 지난 10월 24일 모교 암병원 서성환홀에서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를 위한 해외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모교 병원 吳秉熙원장과 신한은행 徐辰源(AFP 5기)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은행에서 봉사 지원 기금으로 1억2천만원을 전달했다.

2008년 시작해 올해 7회째를 맞는 모교 병원 해외자원봉사단은 모교 병원 의료봉사단과 신한은행 봉사단 33명으로 구성됐다.

해외의료봉사단은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국립 소아외과대학부속 CAMPI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문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미국 특허, 세계 저널 인용률 1위*의
세계적인 공학 학술정보

IEEE Xplore®
Digital Library

Source*: Thomson Reuters Journal Citation Reports 2012
1790 Analytics LLC 2011 (1997-2010 누적)

대학 및 국가 연구기관을 위한
컨소시엄 혜택을 지금 상담해보세요.

The Standard for Standards,
세계 130여 개국에서 사용하는

ASTM
INTERNATIONAL
Standards Worldwide

Standards &
Digital Library

IHS IEEE SAE
INTERNATIONAL
Authorized Dealer in Korea

키티스産學研情報(株)
KITIS Info. & Co., Ltd
<http://www.kitis.co.kr> TEL. 02-3474-5290(代)
대표 홍영표 (국제대학원 GLP 21기)

선박항만 모니터링, 해양위성통신 전문기업 (주)일우인터내셔널입니다.

AIS 기반 선박 접안 감시설비

저희 일우인터내셔널은 Laser센서 기반 선박 접안감시 설비의 Market Share 1위 기업으로 Oil & Gas, 발전, 철강의 물류 입출하 부두에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돕는 감시 시스템을 자체 설계 및 제작하여 국내외 많은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선박의 대형 해상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좀 더 스마트한 충돌 및 사고 예방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및 GS Caltex 에 공급한 이 시스템은 항로별 제한속도를 초과하는지와 선박이 부두 시설물에 충돌할지를 예측 감지하여 사전에 대처하도록 경고를 올려주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장자동화 Monitoring System

선박 항만 모니터링 기술은 위험 상태를 Real Time으로 공장 내 알람시스템은 물론 스마트 기기를 통해 모든 관계자들이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꾸밀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공장자동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기계의 운전상태나 고장상태를 즉각 알 수 있는 Alarm System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저희가 공급하는 Monitoring System을 도입하여 생산 효율화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

저희의 주요 고객으로는 KEPCO, KOGAS, KNOC,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POSCO 등의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POSCO건설, 롯데건설 등의 건설회사 그리고 현대상선, 한진해운, SK해운, STX POS 태영상선, 흥아해운, 우일상운, 현대해양서비스 등의 해운회사 입니다.



(株) 一愚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우 진 태(원자핵공학과 71학번)

www.ilwooin.co.kr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7 금강펜테리움T타워 A-311, A-901/902 Tel : 031-608-2451

환자가 더욱, 행복한 병원 대림성모병원입니다



진료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진단영상의학과 (PET-CT, 초음파, MRI, CT)

진료센터 / 진료클리닉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종합건강검진센터, 중풍수술센터, 치매지원센터, 하지정맥류클리닉, 다한증클리닉



2013 메디컬코리아 대상
4년연속 갑상선센터부문 선정



2013 헬스조선
메디컬·건강산업 대상 수상



2011 대한민국
고객감동병원 NO.1 선정

대림성모병원
DAERIM SAINT MARY'S HOSPITAL

진료예약 및 상담 (02) 829-9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57(대림동) www.drh.co.kr
(서울대학교 졸업생 우대)





나는 해양생물학자입니다

어른들은 나에게 앞으로 어떤 꿈, 어떤 일을 하고 싶는지 자주 물어요.
그럴 땐 난 이렇게 대답해요, 난 이미 내가 꿈꾸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나는 채드윅에서 어떻게 돌고래를 지키고, 바다가 주는 수많은 영감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갈지 배우고 있어요.

하루하루 나를 찾아가는 곳, 채드윅.

입학설명회 일정

교내 입학설명회	10월 23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초등학교 대상
	10월 23일 오후 2:00 - 오후 4:00	중/고등학교 대상
서울 입학설명회	11월 7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오픈 하우스	11월 22일 오전 10:00 - 오후 12:30	전 학년 대상

문의

접수: www.chadwickinternational.org

메일: songdo-admissions@chadwickschool.org



CHADWICK
INTERNATIONAL



www.smu.ac.kr

대한민국에서 가장 글로벌한 젊은이

영어도 잘 못하고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는 젊은이. 하지만 4년 후에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글로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글로벌은 외국어를 잘 하고 해외에 나가는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로벌한 생각을 키우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의 중심! 상명대학교

- 서울캠퍼스 : 서울시 종로구 [입학팀 02-2287-5010 / 입학사정관팀 02-2287-5013]
- 천안캠퍼스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입학팀 041-550-5013]

www.globalenergy.kr



글로벌 에너지 개발 선도기업

글로벌에너지개발(주)

사람과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국내최초 Wood Pellet 전소 발전사업권 획득 및 Biomass 열병합 발전 사업권 3개 동시취득』

열병합 발전 & 환경플랜트 개발 및 운영 • bio pellet 제조 공급

국내외 Biomass 열병합발전사업 & 집단에너지 사업, RPF & WCF 스팀공급사업, Wood pellet & 왕겨펠릿 제조 및 공급사업,
Wood pellet & Rice husk pellet 스팀공급 사업, Global waste 에너지화 열병합발전 사업 & 집단에너지 사업, 지열발전사업
& 집단에너지사업 & CDM사업, 탄소배출권 사업,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해양온도차 발전사업, 풍력발전 사업 등의 Project
developing, P.M, Procurement, Feasibility study, Basic planning, Operating 등의 역무 수행

글로벌에너지개발(주)

대표이사 장 옥(M.010-2083-2342 / E.3113aa@daum.net)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08 뉴티캐슬 1214호 TEL : 02-413-5030 FAX : 02-413-2580

콩트 릴레이

나는 무죄다

金 二 求(국문78-82)소설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가.

나는 오로지 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화국정보원의 수장으로서 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따름이다. 모든 일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현직 공화국정보원장인 이 마성대를 체포해 철창 속에 가두고 재판 놀음에 불러내어 단죄하겠다는 엄청난 일을 일으키다니.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나라를 지키는 일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적은 저 국경선 철조망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라 안 곳곳에 침투해서 보이지 않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던 목

자유 의 범주에서 나오는 그런 순수한 것이 아니다. 그 목소리들의 대다수는 오로지 자기들이 반대했던 후보가 당선됐다는 불만으로 모든 일을 무조건 대통령의 탓으로 돌려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광인들의 것이거나, 앞 세대가 피흘리며 지켜온 이 땅을 기필코 적에게 넘기고야 말겠다는 적성국 추종자들의 것이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법정에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 낱알이 밝혀야 함에도, 나의 변호인은 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조직의 책임자로서 원칙적인 직무 수행 지침을 내렸을 뿐이라는 내용으로 법정 진술

변호인의 전략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공화국정보원장의 직무 수행은 원전적으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초월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일과 관련된 막중한 과업이 어찌 정치와 무관하고 선거와 무관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만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을 인정하든 판사의 판단이 옳을 뿐, 이런저런 법조문을 읊어대며 나를 범법 행위자로 낙인찍은 판사의 판결은 빗나간 것이다. 게다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공화국정보원장의 선거 개입은 공직자의 직무 유기에 다름 아니고, 공화국의 정체를 모독한 국가 모독이라는 판단은 그야말로 엄청난 비약이며 궤변이다.

너희가 제멋대로 기소하고 법조문을 들이대서 판결한 것과 상관없이 나 마성대는 무죄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을 유죄 판결하기 전에는, 나는 결단코 무죄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던가 돌아보면, 이전의 선거에서의 패배가 사이버 시대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한 것이었음을 절실히 깨닫고 당과 정보기관, 군기관이 은밀히 대비해온 데서 시작됐다. 어렵게 다시 잡은 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암암리에 공작을 해왔음에도, 무모하게 추진했던 5대강 사업

이 모든 작전은 전직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 대통령의 지시로 준비되기 시작했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진행됐던 것이다.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자, 나는 대통령의 지시로 선거 전망 분석과 가물치 작전 수행 계획을 가지고 은밀히 후보를 만났다. 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가면 감옥행을 면치 못할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대통령 후보, 그리고 안정된 직장과 풍족한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던 관료가 만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그리하여 모든 일이 각본대로 진행됐는데도, 이 마성대만이 법정에서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서 고초를 겪어야 하다니!

만약 이것이 추진되지 못하고 좌절됐다면,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가물치 작전 없이도 당선될 수 있다고 이를 거절했다면 이 나라는 쫓대 약한 야당 대통령 후보의 손에 넘어가 무정부주의적 혼란에 빠지고, 이를 틈타 적국은 정부를 전복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엄연하고도 막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감히 공화국정보원장을 범법자로 몰아 고난에 빠뜨리는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은 정상적인 것이며, 이를 지켜보고만 있는 대통령은 지난 일을 모두 망각 속에 묻어두었던 말인가. 나는 결단코 항소해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을 밝히고 언론에 살살이 전말을 폭로할 것이다.

가을 코스모스를 흔들며 불어오는 샅샅한 가을바람이 싸늘하게만 느껴지는 오늘, 교도소 식당의 텔레비전에 대통령은 무슨 일로 등장하는가. ‘대통령의 특별 담화’라니, 구중궁궐 깊은 대통령 공관에서 따뜻한 침실과 맛깔스런 식사를 즐기고 비서들의 달콤한 아침에 빠져서 나 같은 존재가 감옥에서 썩고 있는지는 까맣게 잊고 있더니 무슨 특별한 일이 생각났는가.

— 대통령으로서 저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며, 저의 신임을 묻습니다.

지나해 대통령선거에서 여당 사이버홍보팀과 국군 사이버전투단, 공화국정보원 심리전팀이 삼위일체가 되어 저를 불법적으로 지원했기에 저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자격 없는 대통령으로서 당장 대통령직을 사퇴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은 아직 객관적인 사실로 규명되지 않은 저의 양심에 따른 고백이므로, 제가 갑작스럽게 사퇴함으로써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이 국정 개혁을 약속드리면서 투표로써 국민 여러분께 신임을 묻고, 국민 여러분이 신임하시지 않는다면 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국가기관도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공화국정보원을 폐지하고 해외 정보활동만을 담당하는 해외정보처를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분단된 반쪽인 서국과의 통일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다음달 15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서국 총리와 합의했음을 알려드리며...

아,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온화한 얼굴로 도인처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미련한 돈(豚)통령이 저만 살겠다고 꾀를 낸 것 아니겠는가. 내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1백년 징역이라니, 감옥에서 백골이 진토되도록 썩을 수는 없어.

“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보 분야의 중책을 분골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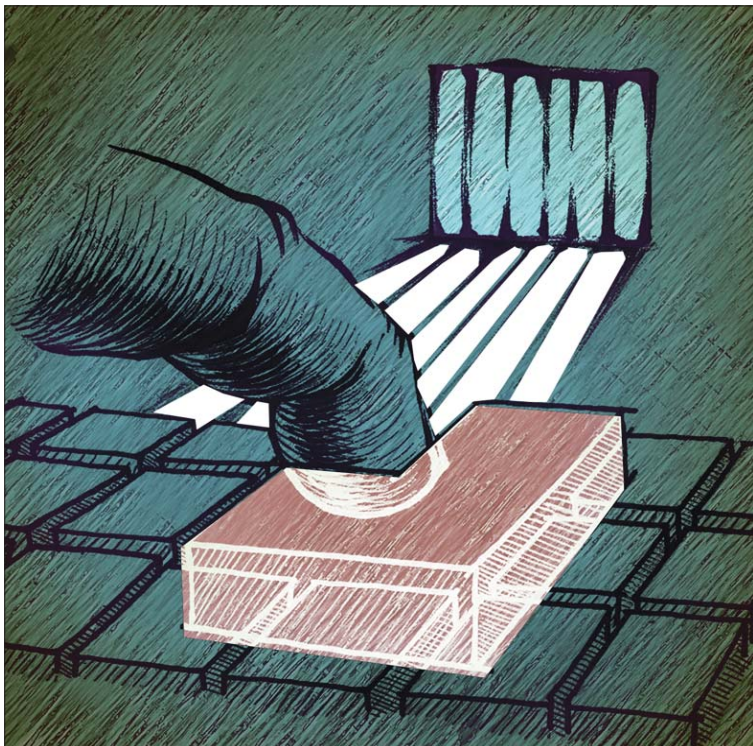
담당하고 있던 나를 추운 감옥에서

떨게 하고 이 지루한 법정에 세운

이 나라의 검찰과 법원은 과연

제정신이 있는 것인가.

”



일러스트레이터 蘇余廷(디자인09-13)

소리들이 모두가 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순수한 의사 표현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진하고도 무지몽매한 착각일 따름이다. 또한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비판 아니 비난하고, 심지어는 미련하고 탐욕스러운 동물에 빗대어 돈(豚)통령 후보라 부르며 제멋대로 쫓고 까불던 만행들이 그 새파란 젊은 검사의 주장처럼 모두 용납될 수 있는 행위란 말인가? 아니다. 지난 재판 기간 동안 법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동·서국으로 분단된 이 슬픈 나라에서, 적은 사이버 세계에서 암약하며 호시탐탐 우리를 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들이 야당 후보를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후원하는 것은 야당 후보가 좋아서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지금의 대통령을 비난하는 무수한 언사들도 이른바 진보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갖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만을 하게 하고 있다. 아니,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여부를 다루는 것이 그다지도 중요한가.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정보 분야의 중책을 분골쇄신 담당하고 있던 나를 추운 감옥에서 떨게 하고 이 지루한 법정에 세운 이 나라의 검찰과 법원은 과연 제정신이 있는 것인가.

— 피고 마성대, 전직 공화국정보원장, 불법적인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 모두 유죄, 국가 모독과 직무 유기 혐의 모두 유죄. 징역 1백년에 처한다. 탕! 탕! 탕!

재판장은 마치 사소한 강도 사건에 판결을 내리듯 몹시 건조한 어조로 심판했다. 유죄, 징역 1백년이라니! 법원은 정녕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것인가. 아직 초가을인데도 교도소 담장 안은 엄동설한처럼 싸늘해서 팔뚝에 소름이 오소소 돌아오르는 구나.

나의 정당한 직무 수행 외에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의 의도와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의 실패 여파로 여론이 나빠져 권력의 향방은 점칠 수 없게 혼미해졌다. 아니 혼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공화국정보원의 예측으로 야당에서 누가 나오는 여당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것은 표면적인 여당 후보 개인의 인기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해 비상이 걸렸던 것이다. 더구나 ‘사람 사는 세상’을 내세운 야당 후보는 떠오르는 정치 샛별인 IT 기업 총수와 손을 잡고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었다.

따라서 이미 기획해왔던 ‘가물치 작전’을 시동해 대대적인 사이버 선거전을 펼쳐야 했다. 야당 후보를 깎아내리고 여당 후보를 칭찬하는 댓글을 다는 차원의 기초적인 것부터 비논리와 막말로 분탕질을 하여 후보 검증이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다차원, 고차원의 방법을 쓰는 것까지 1백37가지 전술을 풀가동했다. 우리 요원들이 쓰고 퍼담았다고 증거로 제출된 트위터, 페이스북, 포털사이트의 댓글 1백만 건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동 정

수 상

▲趙守鎬(회화47-51 한국국제서 법연맹 총재)= 지난 10월 29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 수훈.

▲金后蘭(가정교육53집 문학의 집·서울 이사장)= 지난 10월 29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 수훈.

▲崔滿麟(조소54-58 모교 조소과 명예교수)= 지난 10월 29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 수훈.

▲金東虎(행정56-61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지난 10월 2일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슈발리에 수훈.

▲權元鉉(행정63집 前駐중국 대사·미래숲 대표)= 지난 9월 29일 중국정부로부터 문화·교육 및 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友誼賞 수상.

▲金承鉉(불문60-65 소설가)= 지난 10월 2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 수훈.

▲卜鉅一(상화63-67 소설가)= 오는 12월 5일 장편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문학동네)로 제17회 동리문학상 수훈.

▲李敦求(임학65-69 모교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지난 10월 5~11일 미국 유 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 총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명예회원상 수상.

▲孫海鎰(잡사67-75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부이사장)= 지난 10월 7일 제12회 소월문학상 수상.

▲金仁圭(정치69-73 前KBS 사장·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본보 논설위원)= 지난 10월 27일 마카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양방송연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로 수상.

▲金敏基(회화69-78 극단 학전 대표)= 지난 10월 27일 주한독일문화원에서 사단법인 한독협회로부터 제8회 이미륵상 수상.

▲鄭鎮星(사회72-76 모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10월 6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2014년 삼성행복대상(여성선도상) 수상.

▲金炳宗(회화74-81 모교 동양학과 교수)= 지난 10월 29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화관문화훈장 수훈.

▲盧東榮(의학75-81 모교 암병원장)= 지난 10월 18일 경북고등학교로부터 제4회 자랑스러운 경북인상 수상.

▲崔宰弼(경제78-82 연세대 교수)= 지난 10월 10일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33회 '茶山 경제학상' 수상.

▲丁太映(불문79-83 현대카드 사장)= 최근 프랑스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 수훈.

▲鄭樂臣(제약80-84 모교 약학과 교수)= 지난 10월 23일 부채표 가송재단과 대한약학회가 공동 제정한 '올해의 황명수 약학상' 수상.

▲白盛禧(식품영양90-94 모교 생명과학부 교수)= 지난 10월 6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2014년 삼성행복대상(여성장조상) 수상.

▲洪載和(경제93-97 모교 경제학부 교수)= 지난 10월 10일 제3회 '茶山 젊은 경제학상' 수상.

▲金光勳(HPM 26기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지난 10월 9일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희망멘토링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 수상.

▲임범식(GLP 19기 신세이코퍼레이션 부사장)= 지난 10월 1일 한·일 산업협력상 시상식에서 한·일 간 산업과 기업 간 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인 사

▲韓義永(경제49-54 모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지난 9월 18일 국방부의 6·25 전쟁 참전 사실 확인을 받아 서울북부보훈지청에 참전국가유공자로 등록.

▲申光享(수의학52-56 모교 수의학과 명예교수)= 지난 10월 1일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된 선열유족회 초대 회장에 선출.

▲高周夢(철학68-75 前부경대 교수)= 최근 중국 시안 창안대학교 국제교육대학 객좌교수에 위촉.

▲郭贊浩(신대원69-71 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 지난 10월 1일 40여 년간 한국주재기자로 활동한 일본 섬유신문사의 고문에 위촉.

▲朴敬煥(전기공학75-79 한국전기연구원 연구본부장)= 지난 10월 15일 한국전기연구원장에 선임.

▲吳承夏(의학79-85 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 지난 10월 11일 대한이과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선출.

행 사

▲宋庸植(법학51-55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 지난 10월 29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융복합 창조시대 - 협업에 길이 있다'란 주제로 조찬포럼 개최.

▲閔庚甲(회화53-57 대한민국에술원 회원·본회 부회장)=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2014년 마니프 서울 국제아트페어에 출품.

▲金載姪(회화56-60 한국미술협회 회원·서양화가)= 지난 10월 27일~11월 15일 강원도 춘천시 갤러리 오르에서, 11월 17

2014 쉼보레 슈퍼 세이프티 프로젝트 시즌2

더 많은 쉼보레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지금 쉼보레 전시장에서 SK텔레콤과 함께하는
가족 안전지킴이 스마트 초록버튼을 만나보세요

안전한 쉼보레를 최고의 혜택으로!
(9/1~11/30)

EVENT 1 쉼보레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스마트 초록버튼 제공 / **EVENT 2** 전시장 방문 고객 대상 고급 어린이 헬멧(후정) 및 사각지대 어린이 행인에게 스마트 초록버튼 기증

FIND NEW ROADS

CHEVROLET

한국자영업 고객센터 080-3000-5000 [쉐보레 공식딜러] 대한모터스 051-712-3800 | 삼화모터스 02-753-9900 | 에스에스오토 02-513-0001 | 스피드모터스 042-520-4000 | 아주모터스 02-2023-1900

스파크
신차 안전도평가 종합등급 1등급
충돌안전 / 2014 국토교통부

말리부
신차 안전도평가 종합등급 1등급
충돌안전 / 2014 국토교통부

~30일 강원도 춘천시 아가갤러리에서 관화전 개최.

▲徐桂淑(기악56-60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 지난 10월 8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제8명과 함께 동문 음악회 개최.

▲朴容相(법학63-67 언론중재위원장)= 지난 10월 17~18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공인보도와 인격권'을 주제로 정기세미나 개최.

▲金勳東(농학63-69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지난 10월 8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제12회 경기도적십자봉사원대회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 지난 10월 30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보고서 발표와 북한의 대응: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金春玉(회화64-68 아름다운 댐 이사장·인하대 겸임교수)= 지난 10월 24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예술섬 국제조각 심포지엄 개최.

또 10월 4일부터 11월 2일 공주시 임림미술관에서 개인전 개최.

▲朴聖炫(화학공학64-68 모교 통계학과 명예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지난 10월 2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건강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 개최.

▲鄭東俊(항대원65-67 한글연구원 대표·전국한자추진총연합회 서초지회장)= 지난 10월 8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 國字祝典에서 '한·중·일 공통한자'를 주제로 기조연설.

▲李圭碩(지구과학교육66-73 한국과학교육단체 총연합회장)= 지난 10월 25~26일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제22회 과학썬큰잔치 및 한국학생탐구올림픽 대회 시상식 개최.

▲全英愛(독문73졸 모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최근 첫 에세이집 '소소한 일상에서, 사람의 온기에서, 시인의 농담에서 인생을 배우다'(청림출판) 출간.

▲尹在錫(화학교육71-75 방송인·본보 논설위원)= 지난 11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조국 근대화의 주역들'(기파라) 출판기념회 개최.

▲李貞寅(회화71-75 삼성디자인학교 교수)= 지난 11월 1일부터 한달간 이탈리아 Palazzo Tagliaferro Museum에서 '신장세기'를 주제로 옷칠과 자개 등을 이용한 작품 전시회 개최.

▲李長熙(대학원75졸 한국외대 교수·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지난 10월 22일 서울시의

회 대회의실에서 '남북한 에너지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평화통일비전포럼 개최.

▲李允聖(의학71-77 모교 법의학 교실 교수·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지난 10월 20일 서울 종로구 연구원 회의실에서 '의료화에서 생의료화로'를 주제로 제5회 콜로키엄 개최.

▲柳槿永(의학72-78 모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난 10월 6~10일 그리스에서 열린 유럽항암학회에서 '한국의 암 조기검

진 사업의 성과'를 주제로 특강.

▲朴京沃(기악77-81 한양대 교수·첼리스트)= 오는 11월 18일 서울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이승희(기악83졸)동문 등과 파르벳21 정기연주회 개최.

▲金石蘭(기악80-84 명지전문대 교수·피아니스트)= 지난 11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피아니스트 陳宇卿(기악90-94)동문과

'죽음의 무도'를 주제로 영상과 해설이 있는 음악회 개최.

▲林慶園(기악81-85 성신여대 교수·첼리스트)= 지난 11월 11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흐, 베토벤, 피아졸라 등의 작품으로 첼로 독주회 개최.

▲朴德實(회화81-85 화가)= 지난 10월 6~25일 서울시의회 중앙홀 갤러리에서, 11월 4일~12월

3일 전북 완주군 오스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 개최.

▲李尙協(경제82-86 하와이대 교수·한국학센터 소장)= 최근 한국인 경제학자로 두 번째로 과학저널 사이언스 10월호에

'저출산이 정말 문제인가' 공저자로 참여.

▲李仁植(작곡82-86 성신여대 교수)= 지난 11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아리랑, 삶의 기록'을 주제로 여덟 번째 작품 발표회 개최.

▲金紋廷(기악89-93 피아니스트)= 지난 11월 12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 삼가 명복을 빕니다 ■

- ▲李奎五(법학43-47 석정문화재단 이사장)=10월 7일 별세(93세)
- ▲張秉琳(심리45-48 모교 명예교수)=10월 23일 별세(96세)
- ▲崔順達(전기공학50-54 KAIST 명예교수)=10월 18일 별세(83세)
- ▲芮祥海(법학54-58 변호사)=10월 27일 별세(80세)
- ▲趙正濟(법학55-59 변호사)=10월 3일 별세(78세)
- ▲崔善起(임학55-59 전산림청 과장)=10월 1일 별세(82세)
- ▲梁源植(치의학57-61 모교 명예교수)=10월 28일 별세(78세)
- ▲金治洙(불문60-64 이화여대 명예교수)=10월 14일 별세(74세)
- ▲成裕普(정치61-65 前방송위 상임위원)=10월 8일 별세(71세)
- ▲鄭成朝(작곡66입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10월 26일 별세(68세)
- ▲權五溶(대학원75졸 충남대 명예교수)=10월 16일 별세(82세)
- ▲裴恩姬(미생물79-83 前국회의원)=10월 6일 별세(55세)
- ▲權五烈(AIC 7기 前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10월 27일 별세(61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대표상담 1577-2050
www.noble.co.kr
편안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특별한 VVIP를 위한 No.1 노블 결혼정보, 엔노블에서 서울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엔노블은 국내 최고의 8개 명문대 총동창회, 22개 전문직 단체·기업과 협력하여 5천명의 회원에게 특별한 결혼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격과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곳, 바로 엔/노/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 노 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www.hallaapt.co.kr/salesite/baegot/

유학가자 서울대 신도시로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한라비발디
CAMPUS

총 6,700세대 중 1차 2,701세대 교육특화 주거단지!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EDU
PLAN

단지 옆 서울대 시흥캠퍼스(예정)
서울대 공교육 협력 시범 초·중·고교(예정)
단지 내 서울대 연계 어린이집·유치원(예정)
대규모 스타디움 / 다양한 교육특화 프로그램

LIFE
PLAN

서울대학교 병원(예정)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2015년 착공예정)
갯벌과 바다조망을 선사하는 총 6km 수변공원
바다조망을 담은 휘트니스센터

ECO
PLAN

단지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
자연과 예술작품이 하나된 예술의 정원
온 가족의 즐거운 캠핑장 나무와 캠프
산책과 삼림욕을 즐기는 숲

총 2,701세대 71/84/119/136/138㎡ 문의 1688-2600

※ 본 홍보물은 2014.10.24. 건설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단지 명 서울대 공교육협력 초·중·고교 설립과 관련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사정재정과 서울시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서울대학교 사정재정 협력학교로 추진되며, 협력학교 지정사항은 학생, 학부, 고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서울대 연계 어린이집·유치원은 서울대학교 협조금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임의의 것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분양세대수 및 공급기간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취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40조 별에 따라 처리됩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대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이조화섬(주) 대표이사 안 경 수



HOOLALA CHICKEN



참숯치즈바베큐 참숯문어바베큐 참숯고구마바베큐(치즈떡&고구마떡 택1) 참숯해물바베큐



출발라를 더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찍어 보세요!!
www.hoolala.co.kr

출발라의 '명품치킨요리' 가 문앞까지 배달됩니다!



서울대 전지역 배달가능 배달대표번호 1577-0004



서울대 학생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5%DC (배달포함)
서울대 학생증 소지시
신림점 서울대입구점 (배달가능)



출발라 서울대입구점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문어후라이드 안심후라이드 오징어후라이드 크리스피후라이드

바베큐 치킨 최강자 출발라가 대박 가맹점주님을 모집합니다

웰빙 시대의 소비자들은 음식과 안주에도 건강을 생각합니다. 출발라의 '재료&요리 철학' 이 손님을 감동시키고 이는 곧 높은 매출로 이어집니다. 착한 철학의 출발라가 예비 점주님의 대박을 보장합니다.

문의 1588-9205

신 간

■ 분석심리학 이야기

— 李符永 지음



한 국 음 언 구 원 李符永 (의 학 52-59) 원 장 이 분석심리학설의 기본 개념에 대해 대중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에세이풍의 글들을 엮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 융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 그러나 콤플렉스가 그를 가지고 있음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책은 그동안 저자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분석심리학의 정론을 담고자 한 노력의 산물로서, 무의식의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과 고민 그리고 그 근원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집문당刊·값12,000원)

■ 비밀의 숲

— 金后蘭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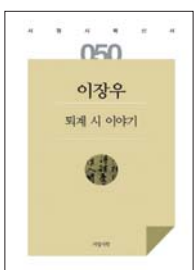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인 문학의 집·서울金后蘭(가정교육 53집)이사장의 시집. 詩歷 반세기를 훨씬 넘는 시간, 한결같이 단아한 모습으로 시를 일궈온 金동문의 시는, 말의 정확한 의미에서의 서정시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 함께 가는, 또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서정시의 본질에 金동문의 시는 철저하게 밀착해 있다.

현대문학상, 월탄문학상, 한국문학상 등을 수상한 金동문은 이번 시집에 표제작 ‘비밀의 숲’ 이외에 ‘매혹의 장미’, ‘침묵의 노래’, ‘물방울 하나의 기적’, ‘자연과의 화해’, ‘비람의 장난’, ‘첫사랑 참꽃’, ‘따뜻한 밥’ 등 40여 편의 작품을 실었다. (서정시학刊·값9,900원)

■ 퇴계 시 이야기

— 李章佑 지음



쉽게 풀어 쓴 책.

한 국 음 언 구 원 李符永 (의 학 52-59) 원 장 이 분석심리학설의 기본 개념에 대해 대중이 쉽게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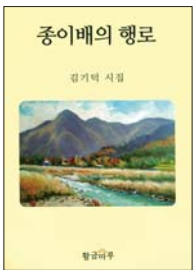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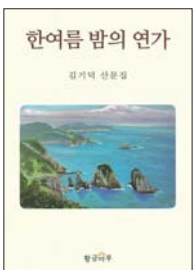
李동문은 머리말에서 “퇴계 시를 좀 쉽게 풀어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고, 삶도 아직껏 남들이 보지 못한 자료들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르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

李동문은 도학자로서 퇴계가 아니라 시인으로서 퇴계의 살아있는 모습을 밝혀냈다. 이 책을 통해 살아 있는 인간 퇴계의 모습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서정시학刊·값15,000원)

■ 한여름 밤의 연가

■ 종이배의 행로

— 金起德 지음



동 곡 재 단 산하 삼동흥 산 金起德(상학61-65)회장이 산문집 ‘한여름 밤의 연가’와 시집 ‘종이배의 행로’를 동시에 출간했다.

‘한여름 밤의 연가’는 1958년 이후 꾸준히 집필해온 자전적 에세이로 강릉제일고교 시절 등 학창 생활과 동부건설 재직 시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을 누비던 산업역군의 시절, 홍익대 교수 시절, 은퇴후 인생 후반부 생활을 진솔하게 담았다.

‘종이배의 행로’는 어려운 현대시문의 형식에서 벗어나 난해하지 않은 80여 편의 생활시로 채웠으며, 은사나 직장 상사들의 傘壽, 米壽에 대한 축시도 여러 편 실려 있다.

이 책들의 표지와 간지 그림은 姜政求(경제61-66)동문의 작품이다. (황금마루刊·값16,000원/12,000원)

■ 눈(眼)

— 吳鍾權 지음



법 무 법 인 새한양 吳鍾權(법학65-69)변호사가 단편소설 5편과 중편소설 1편을 모아 엮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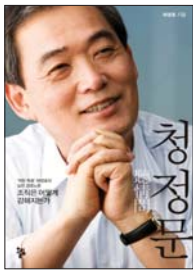
단편 ‘즐거움 우리집’, ‘구름’, ‘물구나무서기’, ‘말 없는 사람들’, ‘길잡이’와 중편 ‘눈(眼)’은 따로따로 여섯 개의 이야기가 분리돼 있기도 하면서, 결국은 하나의 주제를 향해 집약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눈이 굉장히 좋아지면 하늘에 있다는 천사들도 보일까?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작가의 눈(眼)을

따라 오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볼 좋은 기회다. (지식과감성刊·값10,000원)

■ 청정문(聽情問)

— 許永鎬 지음



LG이노텍 대표를 지낸 (주)창성 許永鎬(전자공학71-75)사장이 LG에서 35년간

알마며 위기 때마다 회사를 살려낸 이야기를 담았다. 청정문은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LG이노텍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으로,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聽), 그 사람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며(情),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問)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리더십, 교육, 인사, 판매, 전략, 마케팅, 품질관리, 커뮤니케이션 등 경영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룬 저자의 ‘실전 경영 노트’다. (올림刊·값13,000원)

■ 자유주의와 연고주의

— 黃壽淵 옮김



경성대 행정학과 黃壽淵(경영72-79)교수가 랜들 홀름과 안드레아 카스티요의 책을 번역했다. 저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조합주의, 전제 정치, 진보주의, 과반수결주의, 환경 보호주의, 사회적 정의, 연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산업 정책 등 다양한 주의를 혹은 정치·경제 체제들을 비교 검토했다. 다양한 체제들의 실제 작동을 면밀히 조사한 후 자본주의를 제외한 모든 정치·경제 체제들이 연고주의에 이끈다는 점과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경제적 성분으로서의 자본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버티刊·값12,000원)

■ 법! 말장난의 과학

— 崔德奎 지음



명 지 특 허 법률사무소 崔德奎(섬유공학76-80)대표변리사가 우리나라 사법제도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폐단들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낱낱이 파헤치고, 우리

공 연

■ 金娜瑛 피아노 독주회

— 11월 25일 예술의 전당



세 종 대 음악과 金娜瑛(기악91-95)교수(사진)가 11월 25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

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학위,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金동문은 이날 베토벤, 슈만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음연 3436-5929)

■ 강수연 피아노 독주회

— 11월 26일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강수연(기악04-08)동문(사진)이 11월 26일 오후 8시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귀국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법의 실체에 숨어있는 허구의 논리들을 지적한다.

대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전관예우, 특허분야의 암울한 현실, 나아가 검찰청사의 문제점까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필자는 모든 판결문이 미국처럼 공개된다면, 전관예우도 사라지고 부당한 청탁도 사라져 살맛나는 정의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한다. (청어刊·값13,000원)

■ 식물성 남자를 찾습니다

— 李泳惠 지음



시집.

이 책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시적 권역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시인이 충분히 가라앉아 있는 음색으로 ‘시적인 것’의 역동성을 풍요롭게 노래한다. 서정시의 근원 충동인 자기 회귀의 욕망과 모든 존재들의 상상적 기원인 ‘始原’을 향한 꿈이 배어 있다.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강 동문은 이날 베토벤, 멘델스존, 리스트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음연 3436-5929)

■ 趙允新 오보에 독주회

— 11월 29일 예술의 전당



서 오보에 독주회를 개최한다.

경기과학기술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趙동문은 이날 뷔세르, 미요, 풀랑크, 도라티 등의 작품을 열연한다. (공연문의: 부암아트 391-9631)

‘포도 넝쿨 아래’, ‘청동거울의 노래’, ‘아라홍련, 그대에게’, ‘네 모난 여자’, ‘어느 줌라텔라의 25시’, ‘오래된 시간 냄새’ 등 5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천년의 시작刊·값9,000원)

■ 돈키호테 지점장

— 김범식 지음



구성한 책.

저자는 ‘마케팅의 시대에서 문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리얼하게 보여 주고 마케팅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노력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집필을 시작했다고 한다.

소설을 타고난 저자는 “혹독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은행원들의 애달픈 삶을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 같은 소설”이라며 “은행원뿐만 아니라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해드림刊·값15,000원)

농협은행 김범식(ABP 31기)구미지점장이 마케팅과 문학,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소설로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4년 9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4. 7. 20~10. 24) · 일반 (2014. 7. 20~10. 24)
원내 숫자 : 입학년도 (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孔大植= 1백만원
△부회장 李炯均= 1백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보영 AIP33
△강홍모 의대70 △김영아 자연86
△김영오 공대85 △김정구 공대65
△류도희 ACAD71 △배병우 공대82
△송창록 공대86 △송창진 약대54
△안재훈 의대82 △이경희 간호76
△이종원 SGS17 △임석우 SPAR19
△최덕천 음대75 △최종운 의대77
△한부환 법대66 △한상환 HPM29
△한영진 공대79

(일반) △강종구 의대76
△곽성일 사대79 △김기웅 AMP15

△김기훈 자연09 △김낙훈 공대70
△김덕상 MBA11 △김동익 AMFR26
△김문겸 의대69 △김문수 사회85
△김병진 경대원90 △김석구 농대55
△김석운 자연82 △김석현 농대62
△김순택 의대57 △김승욱 농대81
△김신엽 차대90 △김여순 사대50
△김영철 법대64 △김익환 인문93
△김인숙 사대56 △김정용 공대77
△김종규 공대82 △김지영 공대92
△김지영 의대87 △김창두 공대75
△김중훈 경영85 △김형국 GLP6
△김형규 의대55 △김효석 상대68
△김희백 사대75 △남현대 공대79
△박 흥 사회85 △박종명 ABKI1
△박진성 사대83 △박창환 경영02
△박희순 의대81 △배광옥 자연89
△서동화 약대69 △서미금 사대84
△서수영 공대88 △송기형 경영76
△송인숙 사대71 △신승민 사회89
△신옥선 사대34 △신창섭 의대82
△신현덕 ABKI4 △심재은 생활90

△심형진 공대91 △안복숙 문리57
△안지선 법대88 △양언모 한대원82
△연준혁 인문82 △오민정 GLP28
△오순임 사대60 △왕용래 FNP4
△우광덕 차대64 △유기춘 FNP3
△유영아 차대73 △윤석만 사대74
△윤선진 사대74 △윤재학 사대86
△윤희숙 사회89 △이계숙 생활60
△이병일 자연94 △이상만 공대70
△이석동 농대74 △이성희 상대70
△이수용 공대96 △이수휴 상대57
△이승훈 AWAS1 △이재경 FNP4
△이정원 문리55 △이종훈 AIC23
△이진수 SGS30 △이창렬 문리61
△이한성 법대76 △임건목 공대83
△임변장 사대60 △임상우 SGS20
△임승환 자연11 △임현정 보대원05
△장진보 법대04 △전상린 사대54
△전영배 농대66 △전택성 AMFR28
△정길식 AMFR29 △정성훈 공대05
△정진권 사대54 △정태혁 MBA11
△조경무 HPM25 △조석래 법대51

△조준형 공대08 △차귀수 공대74
△차용준 의대99 △최선목 사회02
△최영균 간호74 △최우익 인문82
△최정혜 공대86 △최호진 HPM16
△한숙희 HPM31 △한지원 사회06
△함영일 농대61 △홍원기 사대79
△황규영 공대73 △황수현 공대91

이 사

◆인문대 △김덕수83 △김원환81
△류규현91 △박종덕74 △변우식77
△손정현84 △오세구72 △유기홍77
△이양재75
◆사회대 △고영일84 △김경용91
△김기령75 △김영섭81 △김용호75
△김현성88 △박민식84 △배지우87
△오영환82 △유성영80 △이계성77
△이원백84 △임 철75 △임주현79
△전승철81 △최완근81
◆자연대 △박송용74 △박윤경83
△이 식85 △이용학74 △이준영81
△전동오84
◆간호대 △곽월희74 △김명숙61
△박상연68 △채명아82
◆경영대 △김선구73 △김종훈86
△서동규84 △이형일82 △차순관72
△최중경75
◆공대 △강창렬79 △권용수81
△권정태84 △김선복62 △김성태53
△김영권83 △김종술66 △김태환66
△김호수63 △남일순81 △박두곤53
△방상구78 △서영수86 △송준환62
△안용수73 △양화섭78 △오희근81
△윤용균81 △이국노80 △이덕영77
△이연주93 △이종우86 △이종훈55
△이종기66 △이태민85 △이홍원66
△정형수59 △조득호66 △조영진76
△조영호75 △주기태69 △지인호76
△최병홍78 △최상민64 △하태흠75
△허대기71 △홍민표74 △황규백93
◆농대 △김광호61 △김상호56
△김훈동63 △남현석81 △문양수82
△박순흥85 △부경생60 △서기호60
△송기덕55 △송기철74 △오원식83
△원종영62 △윤경섭65 △이준원81
△이창구66 △이희수80 △정원화70
△하병찬87 △하영주83
◆문리대 △구봉희62 △권민웅62
△김성중61 △김찬근69 △김치수60
△김홍철60 △노태돈67 △류성희61
△류종탁56 △박인국71 △박하진67
△송대성69 △원용대48 △유정열52
△이상근55 △이영훈64 △정태철55
◆미대 △권석봉81 △김응화81
△김학두51 △성기점58 △한진성77
◆법대 △권순민89 △김 숙69
△김 훈85 △김상근85 △김석기64
△김석재88 △김영학83 △김인겸82
△박상일77 △박윤훈55 △박종근68
△배성진89 △서복현76 △성백현78
△송경숙91 △송재양77 △송진현71

△신원도87 △심우찬02 △유재선63
△유종해50 △윤경희65 △이세형68
△이중훈78 △이충범78 △전재기58
△정해방69 △정호영66 △조용준79
△한승희55 △한찬식86 △황선태66
◆사대 △강경돈70 △강현재72
△김경애74 △김기광64 △김승재71
△노갑기66 △민무일65 △민진호87
△박세원70 △박흥일60 △승만호76
△신용래52 △안재석86 △원혜영71
△이규석66 △이동호59 △이재혁63
△정선영63 △정영옥80 △정인형65
△정주섭52 △채미영82 △최성재85
△최태상53 △함오연67 △형남규67
◆상대 △구용서60 △권태인46
△김명준62 △김영식66 △김종호54
△박상은55 △박성석61 △송병락59
△신양우70 △신해철69 △이광수50
△이남수62 △이용휘57 △이항철54
△조문규57
◆생활대 △류국영84 △이은화75
△정해자61 △조정애57
◆수익대 △김운수74 △김진구61
△김창수64 △나기식54 △남기용74
△신 심67 △오효성77 △이금주83
△이진수71 △장광호75 △조휴익59
◆약대 △김길수60 △김영길61
△남승국70 △백성기59 △오성환60
△오용준68 △윤여표76 △윤웅찬68
△이강현75 △조용현74 △주승재86
◆음대 △김상원87 △김숙이73
△김순화70 △김은경94 △박정자60
△이용일57 △이유희68 △최영택74
◆의대 △고건성67 △김동진68
△김명석62 △박충화71 △전형식81
△정용인68 △정종환56 △최혜령03
◆치대 △김형욱82 △나병선69
△목성규81 △변석두53 △송명욱86
△신정훈65 △양일수73 △오세웅90
△우원희73 △이재봉70 △이종호79
△이호정86 △임종호82 △조형자64
△한성희92
◆대학원 △강우식83 △김동식85
△김진경93 △문두길87 △박동준80
△서수원89 △이범결82 △이범수85
△이은성83
◆경대원 △김선대72 △신인철68
◆교대원 △장석민70
◆보대원 △문성환95
◆신대원 △이근수67
◆행대원 △김인동65
◆한대원 △최강립90
◆AMP △김세래46 △김영섭75
△노태식64 △안병구67 △양성욱1
△이재환48 △이태호20 △조성명75
◆AIP △김석환30 △김정만41
△이창범22 △이충언14 △장진영49
△정방언48 △최용길22 △홍성철34
◆ACAD △권도중49 △박명규40
△신은우56 △안희수11 △유용근38
△이종식73
◆ABP △김선제9 △이재호40
△허 영14
◆SGS △김권욱18 △김두철3
△송두영22 △안기석10 △이강용28
△정해순15 △황용연2
◆HPM △김재중22 △성치용4
△이남영26
◆AMPP △염재구6 △이성현12
△하영수2
◆AIC △류진국90 △조강연30

interbiz

사람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 인터비즈니스시스템

스물다섯 인터비즈 뜨거운 젊음으로 도약하다!

SINCE 1989

사람과 기업의 가치를 잇는 인재관리전문기업 인터비즈가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젊은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새 역사를 열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웃소싱 전문기업 - 인터비즈니스시스템
HR 아웃소싱 서비스 | 근로자 파견 서비스 | 헤드헌팅 서비스 | 채용대행 서비스 www.inter-biz.co.kr

(주)인터비즈니스시스템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6층(여의도동) 본사(관리) 02-799-7900 (영업)02-799-7979

◆AFB △방주득11 △임영준11
△정성모3 △홍경래11
◆AMPFRI △김정훈1 △박용철4
△임한택6 △최호식30
◆ACPM △이경범9 △이신재9
◆FIP △서덕화2
◆GLP △권갑현18 △김강호4
△김세원25 △김종길19 △김태환27
△박동하27 △이상복25 △이승구15
△이효승26 △임채룡26
◆ALP △이승림11
◆ANMP △백현숙5 △엄옥봉1
◆SPARC △박윤한20 △이세형17
△이수원15 △정순태20
◆ASP △문병철11 △이상용23
◆BCP △김원부8
◆IFP △구본훈8 △김숙경8
△백종화2 △최명수2
◆ABKI △박건용3 △박점순2
△박종희1

일 반

◆인문대 △고명섭82 △고병철06
△구상본78 △김신한89 △김준연07
△김지은09 △김지은09 △남창경81
△민유진10 △박우현01 △박준성09
△박철준82 △방문규81 △오은환07
△유성원86 △윤나경06 △윤희상08
△이나령09 △이동웅77 △이용운00
△이우열04 △이재환82 △이준상65
△이현정08 △임혁기74 △전병규84
△조연수89 △주인규06 △최영준94
△한광욱78 △허영민11 △현대정09
△홍영호75 △홍인기07 △황지우72
◆사회대 △강성철89 △권용발74
△김규영84 △김민선10 △김봉주82
△김세준08 △김수지09 △김숙이04
△김승기69 △김원주01 △김정욱04
△김정환09 △김장선84 △김철수72
△김효진07 △도종윤97 △민명기06
△박다혜04 △박세정10 △박소영10
△박정환07 △박희대11 △배준호08
△송지연08 △신대섭87 △오경수00
△윤민수04 △윤여일91 △이선아97
△이설아08 △이윤섭84 △이일현75
△이종권74 △이진녕78 △이홍규72
△장명진07 △장병준07 △장재민07
△조민90 △최재혁89 △최종완00
△한재연84 △함보현95 △황수연09
◆자연대 △강문기68 △강수현04
△강혜원12 △고민섭03 △고영미83
△금왕호07 △김미현04 △김민아07
△김민영09 △김민주11 △김성현08
△김승근86 △김승관87 △김영학81
△김용환74 △김정균03 △김지구07
△노주현83 △박영조05 △배근택84
△백경렬12 △백정환83 △신영우99
△양제하08 △양중섭83 △유병수77
△유해경07 △윤진명10 △이규현79
△이동준79 △이병철02 △이상윤90
△이세롬09 △이성민10 △이원석05
△이인기72 △이준기09 △이한이87
△임경수06 △임민규10 △임병호05
△임승환11 △임창수03 △임호빈10
△장민성07 △전솔10 △전용호75
△정상국76 △조기혁08 △조일권83
△최태혁10 △한대현09 △현준03
◆간호대 △김유경09 △남선화09
△노아영09 △박정호58 △방할란81
△양정은80 △오명희67 △이진솔09

△임준서09 △장명석10 △정혜선77
△최수정10 △최지선09 △황애영68
◆경영대 △곽병우95 △권상호97
△김기준03 △김기훈02 △김동희88
△김범수08 △김원재84 △류열79
△명병석06 △박종욱06 △안호성00
△오윤근06 △우정원07 △유수연00
△이매리09 △이상우76 △이철재83
△이형진07 △임성균77 △임지은12
△정문철87 △최원00 △하지현07
◆공대 △강기용12 △강수민94
△강승관10 △강영식68 △강이석70
△고승구76 △고재현08 △공석봉51
△곽희로61 △구정모93 △권오동69
△김광91 △김영22 △김갑환73
△김경은95 △김덕환04 △김동규58
△김동원05 △김민규90 △김민철10
△김병석87 △김병숙52 △김봉걸46
△김석준69 △김선제08 △김성철88
△김성태55 △김성호05 △김수광57
△김신추11 △김인명62 △김일형75
△김재환54 △김정근60 △김정웅60
△김정제61 △김정현12 △김주혁10
△김주호52 △김지현10 △김진실08
△김충섭65 △김충은99 △김택영82
△김풍오68 △김필한53 △김학기50
△김형규10 △김형전52 △김형진08
△김형태57 △김홍남03 △김희우08
△남시도57 △노오현63 △명동일04
△문선영10 △문영현71 △문제춘71
△민영빈01 △박노열06 △박명준53
△박상언09 △박상우10 △박성수72
△박승엽46 △박용수67 △박용철55
△박용택63 △박원춘76 △박정우83
△박종규68 △박종식70 △박종철06
△박지형03 △박혁준10 △박형호54
△배정희62 △변문현53 △서동완12
△서성주08 △성현05 △성환진86
△손승완08 △송규동85 △송동영10
△송재규55 △송철상61 △신기현08
△신원동85 △심규대05 △안상규85
△안소담12 △오훈95 △오광석10
△오동익89 △오승종70 △오영택08
△오제환84 △우경호78 △유병철09
△유연상89 △유제호79 △유태근04
△유현우10 △유홍식53 △윤석용78
△윤엽선72 △윤영기77 △윤재호74
△윤지규54 △이률00 △이갑훈82
△이강훈52 △이거송07 △이경은05
△이경재10 △이관용87 △이광우60
△이기수09 △이길형69 △이미지03
△이민정07 △이민종79 △이사람06
△이성주83 △이성철66 △이수한05
△이영우58 △이용욱91 △이우철52
△이유진10 △이윤빈92 △이윤직51
△이인태53 △이일환55 △이재학54
△이재환06 △이정균77 △이종전86
△이진혁04 △이진형07 △이진호80
△이재관07 △이충호10 △이호선91
△임동진12 △장경욱95 △전경우10
△전광환66 △정훈53 △정동진64
△정동혁10 △정민철08 △정승교07
△정원배59 △정찬기10 △정해걸69
△정해철59 △정호상59 △조남철62
△조문형96 △조수길53 △조용재51
△조재영10 △조재훈08 △조철진10
△진조철76 △차형준86 △최탄62
△최권호57 △최근준10 △최신해08
△최석훈09 △최용환87 △최우영98
△최의원54 △최정림53 △최진혁85
△편영준77 △하상달67 △한건우55

△한다빈10 △허창환10 △홍선기83
△홍종우53 △황영문53 △황재광57
△황종열69 △황지호99
◆농대 △강동석78 △강석훈84
△강용신54 △강정일64 △강창식56
△고성철76 △고장원55 △공민영05
△김관우83 △김교홍52 △김명호70
△김민규04 △김봉수50 △김상후64
△김승훈10 △김영각49 △김영규51
△김영택55 △김의도87 △김재기98
△김재윤64 △김정용56 △김종운82
△김주성05 △김진배73 △김진태75
△김태선56 △김한균64 △김현성71
△김휘전63 △나용준53 △문규해56
△민병욱76 △민재훈77 △박경원08
△박병현68 △박성철07 △박용제67
△박용진85 △박정근63 △박정덕55
△박종대76 △박종호58 △박진환48
△박홍진67 △배기철04 △배진호07
△백생구57 △서원석79 △서원준67
△서진원05 △석창건00 △성우경50
△소병상74 △소혜연10 △손민기99
△손정일85 △송흠03 △송환창46
△신건성62 △신동현08 △신언곤54
△신정균54 △심상현46 △심의구50
△안병권79 △안옥선87 △안희섭60
△양국현96 △양기태66 △양동섭90
△양인호03 △엄재훈77 △오동환84
△오봉국45 △오영택87 △오완수50
△오윤진56 △오장환57 △유근학55
△유병현61 △유병후73 △유서호94

△유원길63 △유지성59 △유지풍54
△윤재웅09 △윤창원67 △이광현54
△이구락69 △이규석09 △이규형50
△이기호78 △이길상06 △이동재59
△이두형53 △이민재57 △이병규53
△이병훈58 △이상원07 △이영호68
△이익수70 △이재성56 △이전학60
△이종민83 △이종수82 △이종택67
△이준교87 △이한강69 △이해문70
△이형익64 △이화용53 △임근영91
△임록근06 △임승룡55 △임승수74
△임정선09 △전우방55 △전종갑72
△정규희59 △정도웅69 △정영관56
△정지현53 △정한수82 △정환철94
△조명래10 △조안부55 △지재현08
△채수근74 △채정석78 △최균용74
△최성우00 △최수용98 △하재명80
△하창호02 △하현팔68 △한광희55
△한상룡58 △한석현52 △한희석57
△홍석인57 △홍성철50 △황도연12
◆문리대 △강신성65 △강신표55
△강일규53 △김윤61 △김인59
△김동진63 △김만옥59 △김봉영58
△김상철62 △김수춘54 △김영소66
△김영식64 △김용달57 △김용태53
△김인철60 △김종수62 △김철용54
△김현권71 △김형배67 △김홍철53
△류민성64 △박대영60 △박성철48
△박찬범62 △서지원70 △소광섭64
△송성원61 △송한호58 △신윤재50
△심상걸58 △안복숙57 △양승영57

△오형조61 △유일현59 △유지현67
△유희형60 △윤병태56 △윤영식54
△윤용식59 △이강조56 △이건원63
△이계원59 △이영주60 △이우봉69
△이우현60 △이정세52 △이정수64
△이종혁51 △이춘기54 △이태녕46
△임채욱57 △임형두57 △장내식65
△장효희52 △정관철59 △정규석56
△정지영57 △정해웅49 △정해일58
△조희근71 △최관식57 △최순봉55
△최홍기48 △추국엽62 △황영선58
◆미대 △강태성49 △김병욱48
△김지열56 △김지희59 △민철홍54
△박은유09 △박종규69 △손은신82
△신화정89 △안유신98 △오지은08
△원묘희59 △유지영09 △이운식56
△이지인10 △이환범73 △임명욱81
△정정자60 △최숙경59 △최인수66
◆법대 △경익현57 △고재화62
△고전철71 △곽정출57 △곽희준58
△권기대95 △김경만58 △김규연61
△김기천59 △김기현57 △김남수64
△김동익53 △김무길59 △김민영02
△김보섭81 △김상규55 △김상태66
△김성배73 △김소영07 △김용섭63
△김일천65 △김재규57 △김재기68
△김정렬54 △김종수84 △김진홍57
△김혜수07 △김호균73 △류채령06
△류택형49 △문용선76 △문진구01
△민동섭06 △박병연67 △박상근60
△박종국65 △박종성73 △박준하08

www.kftec.com

KOSDAQ
코스닥 상장기업

사람을 위한 기업, 미래를 향한 기술

글로벌 자동차 친환경부품 전문기업 - 코리아에프티
KFTC(Korea Fuel-Tech Corporation)

Eco-friendly Korea Fuel-Tech Corporation
코리아에프티의 친환경적, 첨단기술력은 우리 삶에 이미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코리아에프티주식회사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섬바위길 23
TEL : 031-650-1500 FAX : 031-650-1517

안성(본사) 광주 군도 중국 인도 폴란드

△박진수⁹⁸ △변은석⁸⁹ △성창익⁸⁸
△소철룡⁶⁸ △신근식⁶³ △신성국⁷³
△신수길⁷⁷ △신진민⁶⁰ △안의환⁹²
△양희수⁶² △여정구⁷⁴ △염정훈⁴⁹
△오형환⁶⁵ △우영진⁵² △우영화⁶²
△원문묵⁵⁵ △유효봉⁶⁰ △윤우정⁶¹
△윤종수⁵³ △이상수⁰⁷ △이용관⁹⁹
△이재덕⁸² △이종일⁵⁵ △이주성⁷⁶
△이준범⁹⁷ △이춘식⁵² △이태식⁵⁷
△장지용⁹⁷ △전원배⁷² △전주혜⁸⁵
△전하은⁷⁴ △정극수⁵⁵ △정다워¹⁰
△정원진⁸⁸ △정재형⁵⁸ △정재훈⁹⁰
△정지혜⁰⁴ △제갈현⁸⁴ △조경래⁵¹
△조남현⁵⁴ △조병직⁴⁶ △조세연⁵³
△조인호⁷⁷ △주용완⁸⁹ △채정석⁷⁵
△허광룡⁷⁶ △허무정⁷¹ △홍종현⁶⁴
△황선표⁵⁹ △황재성⁶⁴
◆사대 △강대길⁸⁷ △고지연⁸⁴
△공수영⁷⁰ △공주렬⁵⁷ △권오준⁵⁴
△권오현⁷¹ △김가영⁰⁷ △김경숙⁸³
△김관섭⁷⁹ △김광수⁷⁷ △김규형⁵⁴
△김명수⁶⁸ △김부환⁷⁹ △김상철⁶⁸
△김세철⁷³ △김수웅⁶⁰ △김순신⁵¹
△김연성⁰¹ △김영찬⁵⁵ △김영철⁸³
△김은숙⁵¹ △김은재⁴⁵ △김은파⁶¹
△김인재⁰⁷ △김재철⁷¹ △김정연⁰⁹
△김주경⁵⁵ △김중호⁶⁰ △김지숙⁰³
△김찬흠⁶⁰ △김철교⁶⁸ △김태삼⁶³
△김태희⁰⁵ △김필수⁵⁷ △나청운⁵⁸
△남상호⁵⁸ △노두호⁵¹ △류주현⁹⁰
△마건일⁶⁴ △문선경⁶⁸ △박대규⁵⁷

△박동근⁶² △박보기⁶¹ △박영배⁵⁴
△박원선⁵⁸ △박재근⁷⁹ △박점남⁸³
△박정용⁸⁴ △박종대⁵¹ △박지수¹¹
△박지영⁰⁷ △박진동⁸⁴ △박창만⁶⁵
△백성준⁷⁸ △백수관⁸¹ △서리화⁸⁶
△서혜지⁰⁶ △석중현⁸⁴ △손경해⁵⁷
△송다은¹⁰ △송인숙⁷¹ △신석환⁵⁷
△신정숙⁶⁷ △심상정⁷⁸ △양세영⁰⁷
△여병구⁸¹ △오종식⁵⁷ △유명수⁶¹
△유석렬⁵⁸ △유성렬⁷⁴ △유효숙⁵¹
△윤운섭⁸⁰ △이강인⁷¹ △이달덕⁷⁰
△이동민¹⁰ △이방렬⁶⁵ △이상철⁵⁹
△이시훈⁵⁷ △이영윤⁵⁸ △이예진¹⁰
△이원희⁶⁹ △이은혁⁰⁸ △이종락⁵⁸
△이주호⁰⁷ △이진호⁸⁵ △이현순⁵²
△이현수⁵³ △이현영⁵⁶ △장도진¹⁰
△장완배⁶¹ △정경자⁸⁹ △정광석⁹⁴
△정광윤⁰⁸ △정동화⁵³ △정명진⁴⁷
△정영숙⁵⁸ △정운영⁷⁶ △정원채⁸⁰
△정치순⁵¹ △정풍호⁶¹ △제목례³³
△조낙현⁵⁷ △조병완⁵³ △조원희⁵⁸
△조혜내¹² △천석현⁵⁵ △최동진⁷⁶
△최수연⁶⁹ △최연수¹¹ △최영준⁶⁶
△최현실⁸⁷ △최홍기⁷³ △한난숙⁴⁵
△한공우⁵³ △한인영⁰⁸ △허은순⁸⁶
△홍종봉⁵⁴ △홍학순⁵³ △황권오⁷¹
△황능하⁵¹ △황득우⁹⁶ △황정규⁵⁷
◆상대 △강희봉⁵⁶ △고보상⁷¹
△곽영홍⁵⁷ △권혁조⁵³ △권혁태⁴⁹
△김경모⁵⁶ △김기현⁶¹ △김동엽⁶²
△김무양⁶³ △김성락⁴⁶ △김용민⁷⁰

△김용일⁶⁸ △김재오⁷⁰ △김종창⁵⁵
△김형주⁵¹ △김형철⁶⁹ △노병태⁶¹
△박원규⁵⁸ △박지중⁶⁶ △박풍아⁶²
△배상천⁵⁷ △배종규⁵⁷ △배진성⁵⁸
△백찬목⁴⁸ △서강무⁵⁸ △서병태⁶³
△송재관⁶⁶ △신중진⁶⁵ △심정수⁶³
△안익수⁵³ △엄치섭⁵³ △유춘삼⁵⁴
△유해수⁶⁷ △윤록현⁵⁹ △윤상규⁵⁷
△윤하균⁵⁵ △이기주⁴⁶ △이동재⁵⁴
△이병서⁵⁶ △이승로⁴⁹ △이영서⁶¹
△이정권⁵⁷ △이호철⁵⁷ △정기완⁵²
△정덕화⁵⁶ △정종찬⁷¹ △정택수⁵³
△최경국⁵⁷ △최철현⁵³ △한장식⁶⁰
△한철수⁶² △홍구희⁵⁷
◆생활대 △김순오⁵⁵ △김예지⁰⁸
△김옥순⁵⁷ △김혜숙⁷² △남기숙⁵⁷
△백완희⁶⁸ △유은희⁷³ △이규진⁵⁸
△이미세⁷² △이지수⁰⁰ △임정빈⁵⁷
△정경명⁷⁷ △정선영⁰⁶ △조은희⁷⁶
△최재영⁰⁷ △최종단⁸³ △한경자⁶⁶
◆수의대 △김경휘⁵⁶ △김만영⁵⁰
△김용백⁸⁶ △김준삼⁵⁵ △김지나⁰⁹
△김태희⁵⁸ △명수남⁵⁴ △서광원⁸⁵
△서정기⁷⁸ △송기홍⁶¹ △오남진⁶⁷
△오병준⁶² △유병문⁶⁷ △이강훈⁵⁸
△이성호⁵⁸ △조기형⁴⁹ △조병기⁸⁷
△주찬용⁶³ △최홍렬⁶⁶ △황명수⁷⁴
◆약대 △김옥란⁵⁵ △김주성⁰⁷
△류재은⁰¹ △박창규⁵² △송나래⁰⁵
△신광수⁴⁷ △옥치완⁵⁵ △유재영⁸³
△이상실⁵⁵ △이상준⁶¹ △이우영⁷¹

△이월희⁵³ △이해빈⁵⁸ △이훈자⁵⁶
△임정은⁷⁶ △정구충⁷⁶ △정근배⁶¹
△정숙기⁵⁴ △정원정⁰⁵ △조순자⁶²
△조철원⁵⁷ △조혜숙⁵⁴ △최기철⁵³
△최동완⁵⁴ △최수안⁰⁴ △하성상⁵⁸
△한진호⁵⁹ △홍우일⁶¹
◆음대 △곽지향¹⁰ △김금희⁵⁸
△김재미⁸⁴ △김지훈⁸³ △김형삼⁷⁹
△남은정⁹² △노선형⁰⁹ △박기욱⁶¹
△박세원⁶⁶ △옥상훈⁸² △유혜림⁰⁹
△이민나⁰⁰ △이숙영⁸⁰ △이재영⁸⁰
△이정근⁷¹ △주나영¹⁰ △주인혜¹⁰
△피호영⁷⁹ △한혜연⁰⁹ △황인영⁰⁹
◆의대 △강성하⁷⁷ △강준희⁹⁹
△권영표⁴³ △김병학⁶⁸ △김순택⁵⁷
△김철규⁵⁸ △김희경⁰⁸ △남기세⁸⁴
△박선재⁵² △서재성⁸⁸ △성민용¹⁰
△송민준⁵⁷ △신상만⁶¹ △안문성⁷⁸
△오정성⁶⁷ △유상현¹⁰ △유정민⁹⁴
△윤기욱¹¹ △윤용구⁶⁶ △윤용수⁶⁵
△은 용⁰⁹ △이근후⁷⁷ △이도희⁷⁸
△이방제⁵⁷ △이상완⁵⁵ △이선용⁵⁶
△이수연¹¹ △이승준⁰⁸ △이정균⁵⁶
△이종석¹⁰ △이지혁⁹⁵ △이희발⁵⁹
△임경환⁰¹ △임용오⁵⁷ △장상범⁸⁹
△정상기⁸⁸ △정성원¹⁰ △정진섭¹⁰
△정현석⁰⁹ △조진규⁴⁶ △주흥재⁵⁷
△최승호⁰⁸ △최준호⁶⁹ △하은주⁷⁹
△홍혜경⁹⁷ △황소연⁰⁶
◆자유전공 △구보호¹⁰ △김수민¹⁰
△양주형⁰⁹ △유영상⁰⁹ △이영우¹⁰
△이지은⁰⁹ △조동우¹¹
◆치대 △김명수⁶⁶ △김민수⁵⁶
△김수용⁸² △김신규⁵⁵ △김언형⁹³
△김익현⁷⁸ △김현순⁷⁴ △남상범⁸³
△명동성⁶¹ △박승오⁶² △백유선⁶⁹
△서기진⁷⁹ △성철재⁶³ △송광수⁵⁹
△송광철⁸² △송수복⁹⁵ △안병관⁶²
△우재은⁵⁹ △우형식⁵⁹ △유병현⁰⁷
△유영아⁷³ △윤명국⁵⁹ △윤수영⁶³
△이만선⁶⁶ △이인경⁸² △이종재⁸²
△이창엽⁸⁹ △임종안⁹⁰ △주성원¹⁰
△차병익⁶⁹ △최승은⁶³ △최원철⁹²
△최형화⁸⁵ △한광현⁶⁸ △한기완⁶⁷
△한송이⁸⁹ △한영복⁵⁸
◆대학원 △김정권⁷⁹ △서정효⁹⁹
△오화진⁰⁵ △최귀인⁶⁵ △함성일⁰²
△허찬수⁷²
◆MBA △고인준¹¹ △정병갑¹²
△황성민¹⁰
◆교대원 △김충기⁶⁴ △이상길⁷⁰
◆국대원 △이진우⁰⁹
◆법대원 △신효정¹¹ △양재현¹¹
◆보대원 △경광현⁷⁶ △노재영⁶⁵
△선병관⁹⁸ △오세민⁶⁷ △이선영⁰⁹
△이준협⁸⁴ △조준국⁸⁴
◆의대원 △김영재¹⁰
◆치대원 △김찬영¹⁰ △박두은¹⁰
◆행대원 △김호산⁰⁴ △박갑철¹²
△박명도¹¹ △신기악⁶⁴ △전상우¹⁰
△최봉기⁷⁷ △송장복⁷⁵ △이기덕⁷⁸
△황보영준⁸³
◆AMP △강중현²⁶ △김경덕¹⁸
△김선홍¹⁴ △김태웅⁴⁸ △박영수³³
△송준강³³ △신문범²³ △안학준⁶⁵
△원종해⁶⁹ △윤태하³⁴ △윤한팔⁷¹
△이동우⁷¹ △이상택⁴⁰ △이춘호⁴⁶
△이희일¹³ △정공식⁶³ △정하덕²³
△조대현⁵⁸ △조정현⁷⁴ △황규홍⁵⁷
◆AIP △공학선⁴⁴ △김영규⁴⁵
△김영선⁴² △박종호⁹ △신길웅¹⁰

△이병민²⁸ △이천우¹³
◆ACAD △강기필¹⁴ △곽상하²⁶
△김기봉⁵⁰ △김대경¹⁶ △김은기⁵⁷
△노병균⁷⁷ △박동근⁴¹ △박인수¹⁷
△변희준²⁰ △신건호¹⁵ △신태희³²
△안인순⁵⁵ △이문용²⁷ △이상조⁷⁴
△장준경²³ △전영채²³ △정도정⁷¹
△조강호³⁷ △조용안²⁹ △조현형³⁵
◆ABP △권구철³⁹ △권금자²³
△백형욱³⁶ △송기덕²³ △윤상규²³
△임채호³⁹ △황세영³⁷
◆SGS △강원수³⁰ △김용식²²
△김재경¹ △양재형²² △장태복⁴
△전태효³⁰ △최송휴²² △한강원²²
◆CPHN △김연희³
◆APC △류승현¹⁹ △박만배¹²
△박응규²⁰ △박종현²⁰ △백인엽²⁰
△손세창¹⁹ △양동주¹⁵ △이범희³
△임기환¹⁷ △장 훈²⁰ △정락진¹⁰
△조영대¹⁰ △조의상¹⁶ △조희원¹⁴
△주재현⁴ △황재문¹⁴
◆HPM △김능환³¹ △김성근²⁸
△오병지¹⁵ △윤진환³¹ △이용구³¹
△전필동²⁸ △조용선¹² △최호진¹⁶
◆AMPP △김상욱⁷ △김호진¹⁴
△한태영¹⁰
◆AIC △김재현³⁶ △김창기⁴
△이건수³⁵ △이수호²³ △전 진⁵
△최경하²
◆AFB △김명중¹⁰ △김재명⁷
△양기태⁷ △이광연⁹ △허 훈¹²
◆AMPFRI △김상남³¹ △김흥철³¹
△남선희³¹ △문용기²⁸ △안재수³¹
△정경진³¹ △정형성⁸ △한정기¹
◆ACPM △안순철³ △오동천¹⁰
△유정환⁷ △전영철¹ △최운성⁷
◆GLP △권기원²³ △김일연¹¹
△김지영²⁸ △김태화¹¹ △문기정²⁸
△신민섭¹⁹ △오민정²⁸ △오창균¹⁷
△윤경상²² △이경록¹³ △이영길²⁸
△이정우¹³ △이혜연²⁸
◆ALP △김광주² △여주호²⁰
△이용식¹⁹ △이용재¹⁸ △이태근¹⁹
△장세영¹ △정재주¹⁹ △홍승룡¹⁹
◆SPARC △박진숙⁹
◆AFP △김인근¹⁴ △김홍렬¹
△송치호¹³
◆ASP △박종복⁸ △엄경열¹³
◆IFP △권기대⁷ △모 휘⁸
△박민섭¹⁰ △이지희⁷ △하상욱⁶
◆ABKI △김진환³ △박종명¹
△손인숙³ △양기상³ △오성남³
◆FNP △공제기⁵ △김완식²
△류충현⁵ △박공영⁴ △방남휴²
△방수남⁵ △오덕근⁵ △유기춘³
△이생재¹ △이현송⁵ △임일두⁵
△임희문¹ △정수철⁵ △진용두³
△차용범⁵
◆KFL △박상현¹³ △유재기¹⁶
△정연욱⁸ △최승훈⁷
◆AWASB △김수원¹ △남상규¹
△노윤하¹ △박현준¹ △심승호¹

변호사 김성일 법률사무소



김성일 변호사

21년간 몸담은 정든 검찰을 떠나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 주요경력

안양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당시 안양원에농협 금리조작사건 간부 구속, 재건축비리 재개발조합장 구속, 혈세로 도박한 정부관료 구속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사건과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는 정의검사로 불려졌으며, 모범검사상 수상과 환경전담 우수검사상 수상

■ 전문분야

특별수사(금융, 조세, 기업비리), 형사(환경, 청소년, 성폭력), 민사, 행정

■ 업무장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308호(서초동, 정곡빌딩 남관)-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앞 위치

■ 대표전화 (02)591-8300

■ 주요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 ALP 21기, ASP 26기, SGS 25기
- * 서울 광성고(65회), 연세대 법과대학(81학번)졸업
- * 서울중앙, 부산, 인천, 의정부 검사
- * 대구서부, 부천, 의정부, 안양부장검사
-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22기) 수료
- * 서울서부지검, 제주 부부장검사
- * 서울고검, 대전고검(청주지부장) 검사

2014년 9월

연 회 비	25,670,000
평생회비	39,100,852
입 회 비	870,000
계	65,640,852
2014년 누계	1,038,474,484



JOINT YOOCHANG
THERMAL SYSTEMS CO., LTD.
www.ycthermalsystems.com



THE WORLD BEST JOINT LEADER

30년 이상의 역사,
3,000개 이상의 프로젝트 납품.

대표적 적용 사례 (빌딩)

- Burj Khalifa (세계 초고층 빌딩, 162층)
- 인천 국제공항
- 잠실 롯데 슈퍼타워
- 부산 국제 금융센터
- 63빌딩
- 킨텍스
-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 아이파크 해운대
- 삼성 타워 펠리스
- 동북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

대표적 적용 사례 (플랜트)

- 호남 한국 화력발전
- 울산 환화 케미칼
- 여수 열병합 발전소
- LG 화학
- 고려아연
- S-Oil
- OXY Oman

**세계 품질의 신축이음관 선두기업으로
정부품질 인증과 UL 인증을 포함한
25개 특허, 41개의 시험성적서 및
품질인증서를 보유.**

조인트 유창 써멀 시스템 (주)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품질 향상으로
신축이음관 설치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월등한 신축량으로 조인트 설치 개소를
줄여 시공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편리한 유지보수 기술을
적용시켜 안정적이고 고 능력의
piping system을 구축하였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 개발로 품질 향상을
통해 2006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버즈칼리파에 납품을 성공적으로 하였고,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신축이음관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인트유창의 주요 생산제품

■ 플랜트용



Spare Pak
Slip Joint



Spare Pak
Ball Joint



Spare Pak Multi Joint
(초고온, 고압용 LS NIKKO 적용)



Dual Pak Underground
Slip Joint

■ 빌딩용



Dual Pocket
Multi Joint



Dual Pocket
Slip Joint



Intergral Spare Pak
Slip Joint



Dual Pak Underground
Ball Joint



Vico Joint



“2014 Fall & Winter”



LOUIS CASTEL
PARIS

(주)VL&CO · (02) 548-6801, 6835 www.louiscastel.com